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3 vol.98



TOD'S
MADE IN ITALY



The Captivating Colors Of Tiffany

티파니 마스터 장인들에 의해 탄생된
눈부신 광채의 다이아몬드와 매혹적인 컬러 잼스톤의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만나보세요.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아래의 티파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9/11 - 9/21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9/22 - 9/25 갤러리아 EAST
9/27 - 10/1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10/2 - 10/6 신세계백화점 본점

TIFFANY &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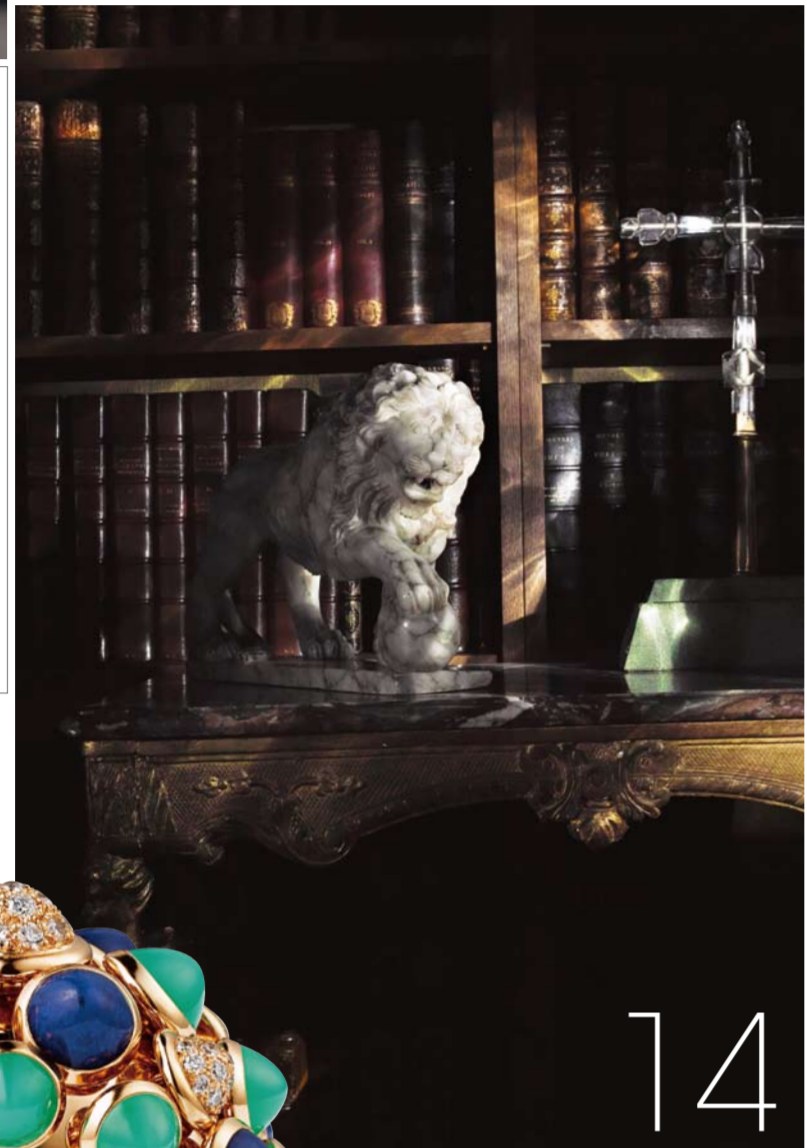
NEW YORK SINCE 1837



38 12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이탈리아 브랜드 토디의 2013 F/W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셀라 백 (Sella Bag)이다. 말안장을 만드는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셀라 백은 이탈리아어로 말의 안장을 의미한다. 지퍼가 있는 쇼퍼 백과 두 가지 사이즈의 구조적인 스타일까지 총 세 가지 디자인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8-8201



14



- 12 **ALESSANDRO MENDINI** 팬대를 잡았을 땐 날카로운 자성이, 스케치를 할 때는 천진무구한 동심이 느껴지는 이탈리아의 거성 알레산드로 멘디니. 건축·디자인계를 주름잡아오는 '글쟁이'로 활약하다가 뒤늦게 조형에 입히는 크리에이터로 나서 큰 족적을 남긴 이 노장은 '문무의 덕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 14 **하이 주얼리, 드림이팅 여정으로 재탄생하다** 올해 유서 깊은 주얼리 하우스들이 지금까지 전혀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세상에 선보였다.
- 16 **CELEBRATE YOU**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원을 노래할 때 그 특별함을 더욱 아름답게 해줄 셀라브레이션 링 컬렉션.
- 18 **BEAUTIFUL FACE** 얼굴 하나만으로 세상을 사로잡은, 페이스가 아름다운 워치 컬렉션.
- 20 **MY DREAM BAG**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남과 차별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스포셜 오디 메이드 백의 세계.
- 22 **SUPREME FRAME**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감각적인 디자인, 견고한 디테일로 주목받는 뉴 프레임들.
- 24 **SENSUAL MEN** 마성의 눈빛과 부드러운 커민스마로 눈길을 사로잡는 향수 모델과 파워풀하고 관능적인 남성 향수의 완벽한 하모니.
- 26 **GET IT GROOMING** 더욱 파워풀해진 성분과 효능으로 메이크업 탄력 없는 피부에 단비를 내려줄 이번 시즌 남성 코즈메틱.
- 28 **SHOWY SHOES** 과감한 디테일로 당신의 스타일 자수를 화려하게 보여줄 화려한 남성 구두.
- 29 **CLASSY PUNK** 비대칭 테일러링과 핑크 패션, 과감한 프린트와 믹스 매치로 대변되는 살아 있는 패션 전설 비비안 웨스트우드.
- 30 **2013 F/W KEY LOOKS** 어감없이 새로운 트렌드가 관웨이에 펼쳐졌다. 올 가을, 겨울을 책임질 2013 F/W 대표작인 룩들.
- 32 **SUPER MOISTURE** 수분 크림부터 마스크, 오일 세럼, 아이크림에 이르기까지, 코스메틱 담당자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보습 제품.
- 33 **FOREVER YOUTH** 입생로랑의 차세대 안티에이징 포어버 유스 리버레이터 라인인 안티에이징 세럼과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
- 34 **REPAIR HAIR** 건강한 두피와 부드럽고 탄력 있는 모발을 위한 헤어 솔루션.
- 35 **FIRMING PERFECTION** 탄력 케어에서 오랜 시간 NO.1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클라리스 엑스트라-피밍 크림'을 <스타일 조선크림> 뷰티 에디터와 뷰티 전문가가 직접 사용해보았다.
- 36 **BLACK TEA MAGIC** 최상급의 어린 차잎만 모아 발효 공정을 거쳐 탄생한 최고급 블랙 티를 주원료로 한 프레쉬의 블랙 티 컬렉션.
- 38 **EVER EVOLVING** 더 날렵하면서도 승차감은 보다 안락한 프리미엄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40 **KANSAI GOURMET** 간사이는 교토, 오사카, 나라, 와카야마 등이 있는 지방으로 일본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현지인들만 아는 특별한 곳에서 일본의 전통 요리와 현대 요리를 경험해보자.
- 42 **BRILLIANT STEPS**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물론 이브닝드레스와 디너 파티 룩에 방점을 찍어줄 드레스시안 수조를 소개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98 September 201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션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SHOP GUCCI.COM

Jewel AGE OF INNOCENCE

순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진주의 아름다움은 영롱하기만 하다. 클래식과 유니크함을 넘나드는 진주 컬렉션.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트리니티 컬렉션에 진주를 매치한 트리니티 펄링 6백50만원대 **카르페디**, 풀을 모티브로 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디자인 컬렉션 링 3백30만원대, 송곳니를 드러낸 듯한 입 모양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디자인 링 2백50만원대, 나란히 배열한 5개의 진주에 풀을 표현한 디자인 네크리스 4백30만원대 모두 **타사기**, 클래식한 드롭 스타일의 아리아리 어링 5백만원대, 플라타네에 다이아몬드와 아교아 진주를 우아하게 매치한 아리아리 네크리스 4천만원대 모두 **타사기**, 에디터 **베미진**

Fashion HOT COLLABORATION

이미 예견된 남성차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철학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들어맞는, 지금 가장 뜨거운 칼라베이션 소식을 준비했다. 먼저 이탈리아 가죽 브랜드 자발리노는 시그니처 백과 감성주의의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타나 by 강남주 컬렉션을 론칭했다. 이번 컬렉션을 위해 이름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컬러 구성과 소재를 선택하는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녀의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을 반영했다고. 부드러운 송아지가죽 위에 파이톤 프린트를 입혀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로 완성했으며, 엘보 더 스타일에서 단독 판매한다. 버드 월렛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캠퍼가 이번 시즌엔 덴마크 패브릭 브랜드 크바드라트(Kvadrat)의 칼라베이션 에디션을 추가했다. 캠퍼의 아이코닉한 슈즈인 펠로타스 라인에 울과 비스코스를 섞은 핏팅 달65라는 울을 얹어 보온과 멋을 동시에 살린 개성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요즘 캠퍼파라리 브랜드에서 단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라벤본이 선택한 파트너는 영국 부츠 브랜드 한터. 1백50년의 역사가 담긴 부츠 브랜드 한터와의 만남은 실용주의와 미래지향적인 패션 디자인을 추구하는 라벤본의 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국내에서는 무릎 길이의 클래식한 스타일에 볼드한 지퍼 장식과 세련된 컬러 매칭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지난 가을 볼타게 열린 캐나디 프리미엄 아우터 캐나다 구스는 라베이스와 손잡고 멋진 남성들을 공략할 예정. 이들은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에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직업복으로 사용된 역사와 헤리티지를 함께하는 젊은 브랜드다. 라베이스 데님과 가죽 디테일을 더한 밴프 피카, 칠리워 볼버 등 베스트와 패딩 아우터를 전 세계적으로 딱 3백 발만 만들었다. 판매가 시작되는 10월 1일, 입구정동 센트럴포스트 앞은 이 매력적인 리미티드 에디션들 사기 위해 줄을 치는 남자들로 발 디딤들이 없을 듯. 에디터 **이예진**



캐나다 구스 X 라베이스

캠퍼 X 크바드라트

한터 X 라벤본

자발리노 X 강남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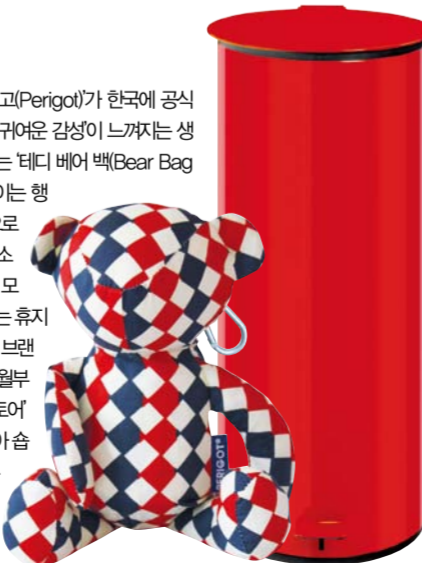
Billy Childish
Frozen Meadow (version), 2013

Exhibition 매혹적인 예술 세계가 펼쳐지는 아트 페어, KIAF 2013

미술계의 카디란 장타이자 전시회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2013이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에 걸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12화째를 맞이한 KIAF는 지난해 8만5천 명의 역대 최대 관람객을 불러오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는 국내외 1백83개 화랑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독 수교 1백30주년을 기념해 현대 미술 강국 중 하나인 독일이 '주빈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14개의 독일 갤러리가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KIAF에서는 올해 주목할 만한 작가로 게르하르트 리하터의 'Sirig' 시리즈를 비롯해 미국 신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데이비드 실러, 강렬한 붓 터치와 인상적인 색감이 특징인 빌리 차일디시, 독일 현대미술의 가장 페터 짐머만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영국의 젊은 별, 다이노스와 제이크 체프먼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KIAF에서 주목을 받았던 나와 고해이(일본)의 올해 신작도 흥미롭다. 아이들 그림 박행의 팀(최승현을 실제 모델로 삼아 그의 몸을 3D 스캔 작업으로 풀어낸 작품 '트랜스(Trans)' 시리즈다. 또 김수자, 이우환, 황진, 제어란, 박현수, 김인숙 등 한국 작가들의 다채로운 창조 세계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공개되지 않았던 컬렉션을 선보인다는 백남준 특별전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 작년 여행의 미학을 담은 아트 컬래버레이션으로 호평받았던 뽀샤시(Paris)는 올해 'Working in Wonderland'라는 주제로 황주리, 이윤백, 백경우 작가가 함께한 작품을 선보인다. 공식 홈페이지 www.kiaf.org 에디터 **고성연**

Design 세련되면서도 양중맞은 리빙 소품 브랜드, 한국 상륙

일상에 윤기를 더할 수 있는 싹트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내세운 리빙 브랜드 페리고(Perigo)가 한국에 공식 입성한다. 과하지 않은 바탕에 파격을 한 줄 정도만 살짝 얹은 듯한 프랑스 특유의 귀여운 감성이 느껴지는 생활용품 브랜드다. 언뜻 보기에 작은 공 인형인데, 이를 펼쳐면 예코 백으로 쓸 수 있는 테디 베어 백(Bear Bag Shopper) 시리즈부터 티조 털로 된 만년젤리, 세련된 문양과 편안한 소재가 돋보이는 행주, 에이프린 등 주방용품, 쓰레기를 담기 아끼울 정도로 예쁘지만 철물점을 전신으로 한 기업과의 합작품이라고도 빼어난 '역사리 휴지통' 등 아자지한 디자인 소품이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맞게 세련되고 새롭게 존재해야 한다"는 모토를 내세운 자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페리고의 소품들은 '오브제'에 가까운 대접을 받는 휴지통을 제외하면 가격이 아주 비싸지도 않다. 창안자인 프레드릭 페리고의 성을 딴 이 브랜드는 9월 초 서울 한남동 이태조 갤러리에서 전시회 형식으로 첫선을 보인 뒤, 10월부터 신세계백화점의 생활용품 기획전인 (매종 드 신세계)를 통해 4회에 걸친 팝업 스토어 방식분점, 강남점, 경기점, 선풍점으로 전역 소개될 예정이다. 또 인터넷 프라비아숍(www.privashopping.com)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미 은근한 입소문을 타온 페리고의 테디 베어 백을 비롯해 그동안 정식 판로를 통해 만나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라인업을 접할 수 있다. 문의 02-784-5500 에디터 **고성연**



Beauty ACE OF BASE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여자들은 베이스 메이크업에 더욱 열을 올린다. 그린클 평소에 잘 맞던 베이스 제품도 들뜨고 멍해지는 지금, 촉촉함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안티에이징, 미백 성분 등의 스킨케어 효과를 들뜬 마음으로 바라볼 때를 놓치지 마라.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모레퍼시픽 트리트리먼트 CC쿠션 SPF 50+ PA+++**는 스킨케어 성분인 대나무 수액과 그린 티 트리트리먼트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고 윤기나게 표현한다. 플루리드 캔저 시스템으로 액상 파운데이션을 쿠션에 담아 얇고 가벼운 밀착감을 자랑한다(30g 6만5천원). **시세이도 마키아주 퍼펙트 멀티 베이스 BB SPF 30 PA++**는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은 기본, 컨실러와 보습 에센스 성분까지 갖춘 멀티 아이템으로, 한 듯 안 한 듯 생얼처럼 매끈한 피부를 연출한다. 보습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오랜 시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특징(30g 4만5천원). **백 프렘+프로인 BB 뷰티 밤 컴팩트 SPF 30 PA++**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답게 메이크업 효과는 물론 휴대성까지 갖춘 컴팩트 타입의 비비크림. 자연스러운 커버력과 뛰어난 지속력을 자랑한다(8g 4만8천원). **설화수 자정 에센스 비비 SPF 50+ PA+++**는 자정비비에센스와 동일한 성분을 46% 함유해 에센스를 비비 때 쓰는 것 그대로의 촉촉함을 선사한다. 백신 시모노를 함유해 자외선에 의한 색소침착을 예방한다(30ml 6만원대). **7월 저자극 비티민 CC크림 SPF 50+ PA+++**는 화이트닝, 주름, 자외선 차단외 3중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티민 C 에센스를 바른 듯 탁월한 스킨케어 효과를 느낄 수 있다(30ml 4만6천원대). 에디터 **권유진**



BURBERRY

버버리의 신상품 크러시를 소개합니다

BURBERRY.COM



자연스러운 안가죽 소재의 웨스트론 셔츠 3백66만원 **탈레 라벨 데님**.

따스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돋보이는 모자 35만원 **엔소니 페토 by 10 코르소 고모**.

바지단 컬러의 패들 스카프 7만원 **탈레 라벨 데님**.

에스닉한 패턴의 실크 타이 37만원 **브리오니**.

도자기로 만든 유니크한 보타이 26만5천원 **코르시네리베도리 by 비아키**.

메탈 소재의 안경 30만원대 **수비 by 옵티칼 W.**

13인치 화면의 풀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5.0 버전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50만원대 **에이퍼 500**.

13인치 화면의 풀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5.0 버전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50만원대 **에이퍼 500**.

for him Selection

선선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친다. 가을에 어울리는 에스프레소의 풍부한 컬러를 담은, 멋스러운 딥 컬러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코트와 가죽을 결합한 고급 벨트 가격 미정 **앤더슨 by 분다삼맨**.

자만 장미 안더슨의 리본한 코트 포인팅한 코트 리본, 울트 슈즈 가격 미정 **프라다**.

카무플라주 패턴이 트렌디한 스니커즈 90만원대 **발렌시아가 by 무이**.

깊은 컬러감이 매력적인 송이 가죽 장갑 39만원 **마틴 마르치엘라**.

그린 컬러의 스퀘어 카프스 장크 19만원 **홀스미스**.

8K 링크 골드 베젤과 초콜릿 컬러 다이얼의 호화가 감각적인 칼만브드 까르띠에 크로노그라프 워치 1천2백만원대 **까르띠에**.

울 소재의 브라운 체크 울 셔츠 1백80만원대, 패턴 재킷 1백80만원대, 체크 패턴 코트 셔츠 40만원대 모두 **Z 제나**.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가 멋스러운 더블 스트라이프 백, 43X35cm, 가격 미정 **토즈**.

그린 보헤미안 마블 소재가 럭셔리한 비, 제로원 마블링 1백만원대 **볼가리**.

- 탈레 라벨 데님 02-6004-0136
- 브리오니 02-540-4723
- 비아키 02-543-1270
- 프라다 02-3218-5341
- 캐논 1588-8133
- 무이 02-3446-8074
- Z 제나 02-546-6287
- 까르띠에 1566-7277
- 볼가리 02-2056-0172
- 분다삼맨 02-3444-3300
- 토즈 02-3438-6008
- 홀스미스 02-3447-0278
- 마틴 마르치엘라 02-6905-3676
- 10 코르소 고모 02-3018-1010
- 탈레 라벨 데님 02-3444-0077
- 옵티칼 W 02-6911-0845

성남 플라그린스푼어 서울서 강남구 장남동 14-14매출 로리에 빌딩 1층
Tel. 02.511.0285 | zegna.com



Ermenegildo Zegna



클래식한 디자인의
송이저가죽 토트백,
37X33cm, 1천만원대
에르메스.

복고 무드가
느껴지는 레트로
신글라스
가격 미정 디올.

for her Selection

지난여름에 즐겨 입던 내온 컬러는 잠시 옷장에 넣어두자.
이번 시즌엔 블랙, 다크 네이비, 카키, 버건디 등의 다크 컬러가
강세다.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약이가죽
정자갑
2백38만원
헨리 베글린.

바를 장식이 멋스러운 벨트 모자 70만원 구찌.

하트 패턴이 사랑스러운 니트
2백만원대 버버리 프로셀.

브랜딩 로고가
문보이는 실크
스카프 가격
미정 까르띠에.

지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오픈 토 샌들
1백70만원대 프라다.

라본 모리엔의 에펠 벨트
11만원 테드 베이커.

레드 린스틱의 매혹적인 향기에서 영감을 받은 아즈부키
리미티드 에디션 향초. 270g, 15만원 시호 트루통.

스타일링이 쉬운 유령형
에르메 벨리엔.

타탄 체크를 더한
보이 샷셀 백 가격 미정
샤넬.

세라믹과 핑크 골드의
조화가 세련된 앙프로렌드링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생동감 어린 핑크의
에르메는 아메리칸 거장 미정
그라프.

페이퍼트 소제의 데일
로시 60만원 토즈

리안데르 베르데의 아이메는 2012년 339만원에 팔렸지만...

구찌 1577-1921
디올 02-513-3232
에르메스 02-544-7722
까르띠에 1566-7277
시호 트루통 02-517-5218
프라다 02-3218-5341
테드 베이커 02-310-5112
샤넬 02-543-8700
루이 비통 02-3432-1854
토즈 02-3479-6030
그라프 02-2256-6810
마르니 02-3445-3664
올채엔가버나 02-3444-0077
10 꼬르소 코모 02-3018-1010
헨리 베글린 02-548-8786
버버리 프로셀 02-3485-6536

빅 플라워 패턴이
눈에 띄는 코트
2백19만원 마르니.



THE GALLERIA EAST 4F / 82 2 514 9088 SHINSEGAE MAIN 3F / 82 2 310 1578 HYUNDAI MAIN 4F / 82 2 3449 5394
GRAND HYATT HOTEL ARCADE / 82 2 749 3088 SHILLA HOTEL ARCADE / 82 2 2236 3088 KITON.IT

Kiton



interview

시인의 감성과 지성인의 각성, 그리고 혁신기의 도전 정신을 담아내는 창조 혼

Alessandro Mendini

펜대를 잡았을 땐 날카로운 지성이, 스케치를 할 때는 천진무구한 동심이 느껴지는 이탈리아의 거성 알레산드로 멘디니. 건축·디자인계를 쥐락펴락하는 '글쟁이'로 활약하다가 뒤늦게 조형에 임하는 크리에이터로 나서 큰 족적을 남긴 이 노장은 '문무의 덕'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요즘 그는 자신의 다채로운 창조 여정을 '세상에 없었던 빛'이라 자부하는 조명 브랜드 '라문'으로 환하게 밝히고 있다. 화려한 듯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절묘한 색채와 소재의 배합, 단순한 듯하지만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감성이 스며들어 있는 '멘디니포' 창조 세계에 첨단 기술이 녹아든 작품. 어찌 눈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2011년 여름, 독일 바이에른 주(州)에 자리 잡은 중세풍의 아름다운 도시 뉘른베르크의 신 박물관(Neues Museum Nürnberg)에서는 80세 생일을 맞이한 이탈리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창조 여정'을 기리기 위한 회고전이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Alessandro Mendini: Wunderkammer Design>.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ies), '경이의 방'(wonder-room) 정도로 풀이될 수 있는 '분데르카머(wunderkammer)'라는 독일어 표현은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 사이에 유행한 '지적 욕구'를 동반한 수집열에서 유래된 것으로, 놀라울 정도로 진귀하고 매혹적인 사물들로 가득 찬 공간을 뜻한다. 미학적 경이와 지적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조 이야기'를 지닌 멘디니의 다면적인 작품 세계를 제대로 응축하는 수식어가 아닐 수 없다.

건축, 가구와 제품 디자인, 설치, 전시 기획 등 경계 없는 활약을 펼치는 팔방미인이지만 그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상징적인 작품이 두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두 팔 벌린 여성의 형상을 색채와 비례의 미학이 돋보이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버무려낸 '안나 G'라는 와인 병 따개. 이탈리아 주방용품 브랜드의 자존심으로 통하는 알레시(Alessi)의 막강한 스테디셀러로 국내에서도 '멘디니'라는 이름은 잘 모를지언정, 이 귀여운 코르크 스크루를 보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1994년 선보인 '안나 G'가 당시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서 영감을 받은 창작물이었기에, 그는 거의 10년 뒤인 2003년 일종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작공 버전인 알레산드로 M'도 내놓았다.

'이유 있는 저항'으로 디자인 업계의 판도를 바꾼, 살아 있는 아이콘

"둘 중 누가 더 마음에 드냐"는 농담 섞인 질문에 "당연히 G가 더 좋다"며 웃을 그는 82세의 멘디니. 이따금 '네'의 눈이 번뜩이는 걸 제외하면 아이 같은 연약함과 천진함을 풍기는 그를 서울 하늘 아래 마주하고 앉으니 한때 기능주의의 대세에 반기를 들며 1970~80년대 '안티 디자인' 세력의 대표 주자였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색의 필터'에 충분히 여과된 듯한 신중함답을 전내는 편인 그가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큰 명성일 없이 '프루스트' 체

어(Proust Chair)'를 꼽아 퍼뜩 현실감이 밀려들었다. 소위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결자로 평가되는 멘디니의 진정한 대표작인 '프루스트' 체어. 지금은 온갖 '응용 버전'들이 나와 있지만, 1978년 처음 선보인 이 위풍당당한 인락의자의 오리지널 버전은 18세기의 고풍스러운 뎀시와 폴 시냐르의 점묘법을 연상케 하는 회화적 무늬가 어우러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단지 바로크풍의 고아한 자태와 알록달록한 점들이 흩뿌려진 무늬 덕분에 디자인사에 한 획을 그었을 리는 만무하다. '프루스트' 체어는 대량생산 열풍을 등에 업고 군더더기 없는 형태와 목적성을 강조한 기능주의와 소비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의식에서, 사람과 사물을 '소통'하게 하는 다채로운 감성을 불어넣으려는 실험 정신의 소산이었다. 멘디니가 주축으로 활동했던 그룹 '스튜디오 알카미아'가 주도한 '리디자인(Redesign)' 전시회에서 발표했는데, 이 전시 제목이 시사하듯 '완전히 독창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아래 고전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프루스트'도 사실은 앤티크 의자 하나를 사다가 색 점들을 찍어놓은 것에 불과했다(물론 여기엔 저항 정신만이 아니라 그가 경이했던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얻은 시적인 영감을 디자인으로 풀어난 창조성도 녹아 있다). 멘디니는 이처럼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기존의 디자인에 약간의 '양념'을 얹는 식으로 '리디자인' 개념을 투영한 일련의 작품들을 내놓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게리 리트펠트의 '지그재그' 체어와 같은 전설적인 명작의 등반이여 가로 뻗을 터해 마치 십자가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든지, 조 콜롬보의 플라스틱 의자를 대리석 질감의 목직환 의자로 바꿔놓는 다든지 하는 '재치' 있는 파격을 댔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만 해도 멘디니는 정식으로 디자이너나 건축가로 데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자신이 창간한 디자인·건축 잡지 <모도>와 건축 잡지 <도무스>의 편집장으로 일하던 시기였다. 앞서 <키사벨라>에서의 잠시 경력까지 합치면 그의 '편집인' 이력은 무려 15년여이다(젊은 시절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한 그는 종종 건축에 대한 글을 쓰다 출판의 세계에 들어갔다). '제 잡지를 각각 5년 정도씩 맡았는데, 늘 처음 2년은 궁급해서, 그다음엔 정말 재미있어서 하다가 마지막 1년에는 좀 지루해했던 것 같아요.' 그는 싱긋 웃었다.



1, 2, 3 '링' 디자인을 채용한 LED 램프 '아물레토'는 시력을 보호하기에 이상적인 뿐만 아니라 이루어 오래 켜놓아도 뜨거워지지 않으며 전력 소비도 적다. 투명, 불투명, 단색, 삼원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다. 첨단 기술과 수제자의 정성이 어우러진 조명 브랜드 라문의 '호'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가운데가 텅 돌린 동근 링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4 미술관도 해나려 장례식을 지낸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건물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개성을 띠도록 디자인한 네덜란드의 호로닝엔(Groningen) 뮤지엄. 5 환상적인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비블로스 호텔 의 객실. 6 조명 브랜드 라문에서 곧 선보일 장식 조명. 손 대면 종소리가 나고 불이 켜지는 '인공적인 감성'으로 알려진 이틀 베니스의 유한 유리로 갈라진 뒤 확대한 듯한 '오페라' 테이블이 있다. 7, 8 긴 팔을 늘어 올리는 동작을 연상시키는 알레시(Alessi)의 와인 병 따개 '안나 G'와 자신의 캐비닛을 본뜬 알레산드로 M. 9 1970년대 기능주의와 소비주의에 반발, 일상의 감성을 통해 고전을 재해석한 인락의자의 또 다른 버전인 '프루스트 지오메트리카' (2009, Cappellini).



50대의 지성, 펜으로 글을 쓰는 대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다

범지구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한편 날카로운 비평을 쓰는 데 활용했던 펜대의 방향을 스케치로 돌린 '커리어의 전환'은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건축가가 평론가, 기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면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대부로 <도무스>를 창간한 조 폰티(Gio Ponti) 역시 그러한 궤적을 그린 인물이다. 게다가 멘디니는 자신이 온전히 한 가지 일만 한 적은 평생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설계 사무소 시절엔 글을 많이 썼고, 잡지에 몸담았을 땐 알카미아 활동도 했으며, 편집장 시기에는 틈틈이 의뢰받은 컨설팅 일도 섭렵했다는 것이다. 비록 '조형'에 대한 열망으로 노선을 바꾸긴 했지만 멘디니는 '글'을 진정 사랑했다. 그래서 정신적 멘토로 삼은 폰티가 자신을 '후계자로 선택했을 때의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그가 저를 자택에 초대해 와인을 잔에 따르며 말했지요. '네게 <도무스>를 맡긴다고, 정말이지 기뻐요.'" 여러모로 '준비된 크리에이터'였다고 하더라도 '전환'의 연령대만큼은 여전히 놀랍다. 멘디니가 자신의 동생 프란체스코 멘디니와 함께 이탈리아에 멘디니를 열면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정식 명함을 내민 건 1989년. 이미 50대에 접어들어 나이의 무게가 적지 않았을 시점이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이혼이라는 상처까지 겪은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전업은 차음부터 성공적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노란 색 타워와 옥상에 삐죽 솟은 2개의 뿔이 인상적인 호로닝엔 뮤지엄(1989~94)은 당시 드물었던 '명량한 개성'을 지닌 미술관이라는 맥락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마냥 화려한 게 아니라 정교한 미학적 계산과 동심 어린 감각이 반영돼 있기에 편안한 느낌을 자아내는 '색채 배합'의 미술사로서의 잠재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이었다. 스위치, 알레시 등 경쟁 브랜드들과 일하면서 산업 디자이너로서의 명성도 착착 쌓아갔다. 멘디니는 단지 예뻐장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는 출중한 아트 디렉터 역할을 해냈다. 대담하고 매력적인 장식으로 시계를 친근한 패션 액세서리로 자리매김시킨 스위치의 '오펀로지오' 시리즈, 디자인 언어가 사뭇 다른 알레시와 필립스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기능성과 감각적인 스타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한 주방 가전 시리즈는 그가 얼마나 '변신'과 '협업'에 탁월한지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한편, 롯데카드 등 한국 기업들과도 연을 맺어온 그는 최근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더샵'의 외관 디자인과 각종 사인물 디자인을 맡았다.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분위기의 하노버 버스 정류장과 주변부에 있는 낡은 건물의 고색창연한 운치를 살리면서 출입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 벽'으로 즐거움을 꾀한 나폴리 지하철역 등 공공 디자인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발휘해온 그의 손길이 닿은 더샵의 변신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지성인의 빛'을 표방하는 '아물레토'를 내세운 조명 브랜드

"사실 조명은 첨단 LED 기술이 이미 개발된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형태를 못 벗어난 품목이지요. 동그란 수송대 조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아물레토는 눈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는 '링' 디자인의 이점을 여러모로 잘 살린, 시대를 잘 만나 탄생한 녀석이에요." 첨단의 장점을 두루 지니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는 섬세한 '수제작' 공정이 필요하다는 아물레토의 부품들은 장인 정신과 기술의 아우러짐을 뽐내듯 서울 대차동의 라문 플래그십 매장 천장에 잘 보이도록 전시돼 있다. 4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는 라문 프로젝트를 위해 멘디니는 매장의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고객 카드와 가격표, 심지어 상품 구매가 가능한 웹사이트(www.ramun.com)의 디자인에까지도 세세히 관여했다고 한다. 아물레토의 뒤를 이을 후속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전자 종과 전자 촛불의 기능을 합친 듯한 양 증맞은 소품 조명 '캄파넬로(Campanello, 모자처럼 생긴 윗부분에 손을 대면 종소리가 울리며 불이 켜지는 LED 조명), 그리고 베니스 유리공예의 진수를 보여주는 베니니(Venini)와 합작해 우아한 색감과 조형미를 지닌 장식 조명 '오페라(Opale)'가 곧 세상에 선보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보니 '색감' 얘기를 빼놓을 수 없었다. 멘디니 특유의 색채 감각이 라문 제품 전반에 걸쳐 유감없이 발휘돼 있기 때문이다. "색상을 결정하는 데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물레토에는 투명과 불투명이 있는데, 둘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강한 원색 계열을 골랐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소재라서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3개의 원형에 각각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적용한 아물레토의 '트리니티(Trinity)' 버전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신조형주의나 미래파 작가들의 작품을 떠오르게도 한다. 어릴 때부터 순수 미술의 애호가로 살아온 그는 이 대목에서, 몬드리안보다는 그가 사랑해 마지않는 칸딘스키의 느낌이 녹아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비록 '저항'의 도구로 쓰긴 했지만 멘디니는 칸딘스키 의자를 만들 정도로 그의 열렬 팬이다). 그로서는 '차가운 추상'의 작가인 몬드리안이 아니라 '뜨거운 추상'으로 통하는 칸딘스키에게 필연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펜대를 휘두르던 이혼가 출신답게 마인드 자체는 냉철한 이상의 논리를 추구하지만, 만약 다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할 만큼 이탈리아인 특유의 자유로운 감성과 풍부한 열정을 지녔으니 말이다.

'로맨스 소설'이라... 대학에 들어갈 때는 멋모르고 엔지니어링을 택했다가 '건축' 설계로 선회하고, 세상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도전적인 '글쟁이'로 살다가 또다시 변신을 감행, 칸딘스키와 프루스트를 자신만의 창조 혼으로 녹여내며 '호기심의 방'이라는 수식어를 꿰찰 정도로 다채롭게 진화하는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크리에이터라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제부터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진심 어린 격려(?)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눈에 미소를 담백 머금었다. "맞아요. 안 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긴 한데, 자신은 두꺼운 소설이 아니라 얇은 단편 로맨스를 쓰고 싶다고 누차 강조하는 거장도 누차 강조하니 어쩌서 그를 가리켜 '로맨틱한 반항'(romantic rebel)라 하는지 새삼 알 것 같았다. **SI** 에디터 고연정

하이 주얼리, 드라마틱한 여정으로 재탄생하다

주얼리는 패션과는 달리 오로지 '트렌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오라가 있다.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클래식은 있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힘들며, 올해 유서 깊은 주얼리 하우스들이 지금까지 전혀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세상에 선보였다. 넘볼 수 없을 만큼 고고하기만 했던 하이 주얼리의 세계가 조금씩 문을 열고 대중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새로운 하이 주얼리와 함께 열렬한 환영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올해 까르띠에와 티파니, 반클리프 아펠, 불가리와 같은 전통적인 주얼리 하우스에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매번 더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하길 원하는 전통적인 패션 업계와는 다르게, 수년에 한 번 선보이기도 어려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다양한 브랜드에서 같은 시기에 대대적으로 선보인다는 것은, 주얼리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다. 주얼리 하우스에서 하이 주얼리의 의미는 패션계에서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에 비견할 수 있다. 보석만이 갖는 매혹적인 빛깔과 그 특유의 감성을 기리며 보석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이 주얼리아이기에 공방의 장인들과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하는 브랜드의 수장이 공들여 완성한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하이 주얼리가 데뷔 무대를 가지면 그 이후로 수년간, 혹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주제의 다양한 주얼리들이 선보이게 된다. 하이 주얼리의 디테일과 스토리가 대중적인 디자인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르띠에는 팬더 라인을 꾸준히 변형해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까르띠에 매장을 방문하면 비교적 대중적인 아이템에도 팬더 모티브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십 년간 고된 끝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완성한 후 발표하면, 이를 모티브로 실현 가능한 수준의 주얼리를 선보여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새로운 하이 주얼리의 탄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주얼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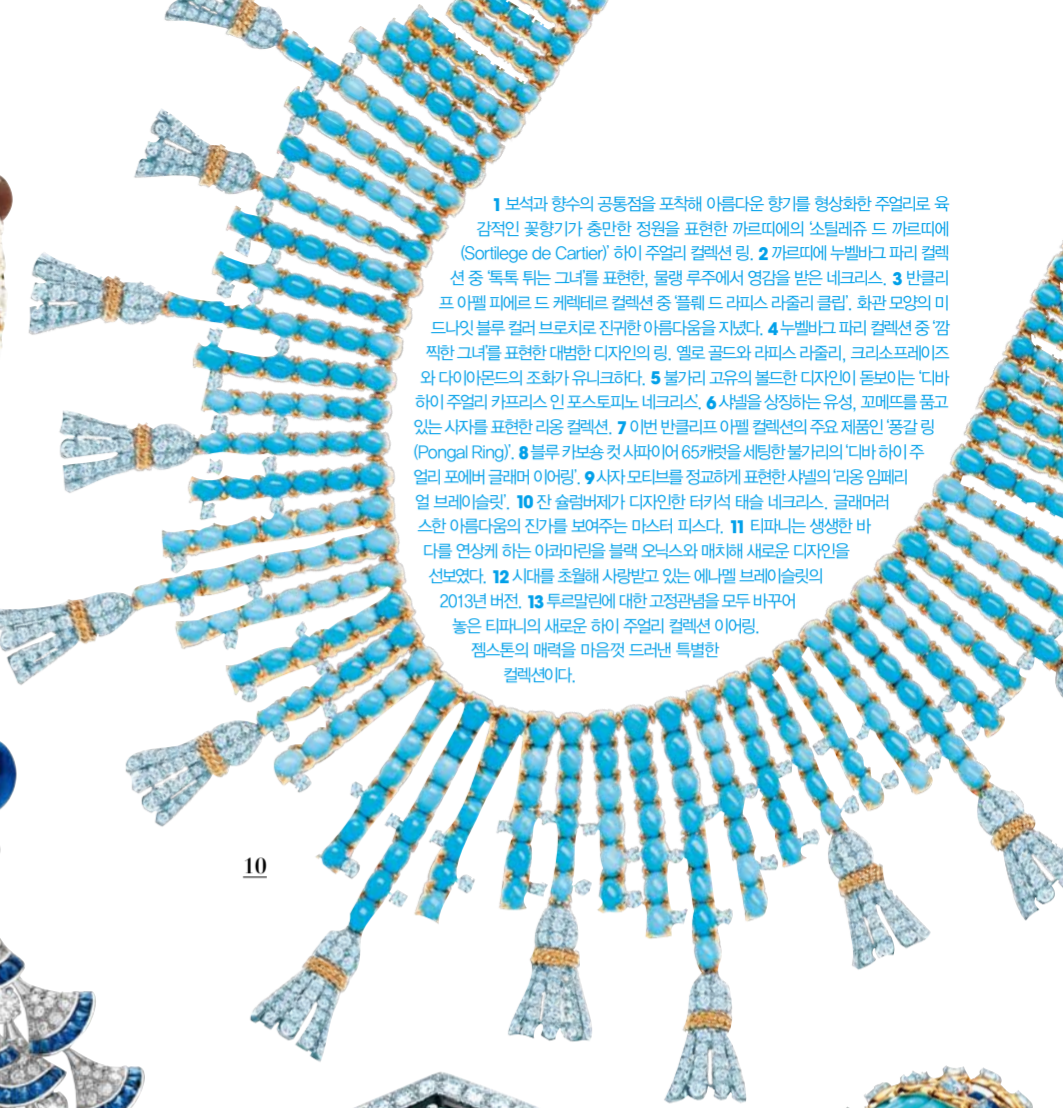
모던 걸 파리지엔, 하이 주얼리의 뮤즈가 되다

파리를 주제로 한 까르띠에의 새로운 컬렉션은 그 이름도 파리지엔스러운 '누벨바그 파리다. 이젠 프랑스의 아이콘이 된 파리지엔이 간직한 섬세한 뉘앙스와 컬러, 비발리다운 매력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주제로, 그 자체가 관념적이고 신선하다. 과거의 하이 주얼리들을 떠올리면 보다 구체적 인 주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뱀이나 그 자체로 아름다운 꽃이나 식물과 같

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혹은 왕족이 소유했던 원석이나 크기, 컬러 면에서 압도적인 원석의 가치를 하이 주얼리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 반면 이번에 선보인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보다 현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테마다. 하지만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언제나 그렇듯 완전히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기존 하우스의 모든 기록을 저장해둔 아카이브와 고유의 스타일은 어디에서나 묻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주제가 파리, 혹은 파리지엔이 아닌 '누벨바그 파리인' 것이다. 과거 유럽을 뒤흔든 사조인 누벨바그(Nouvelle Vague, 프랑스어로 '새로운 물결'이라는 의미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절정을 이룬, 프랑스의 젊은 감독들을 중심으로 퍼진 진보적 영화 운동. 영화 <네 멋대로 해라>를 만든 장 뤽 고다르 감독이 대표적)에 파리지엔을 결합한 것. 누벨바그 역시 그 시대의 '모던'이었기에 클래식한 자연의 모던과 현재의 모던 걸인 파리지엔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화화작용을 기대한 것이다. 물론 결과는 성공적이다. 스토리를 모른 채 주얼리만 본다면 마치 수백 년 전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볼드하고 과감한 빈티지 주얼리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누벨바그 파리 컬렉션'의 내용은 파리지엔의 일곱 가지 개성에 대한 멜로리다. '깜찍한 그녀, 관능적인 그녀, 도도한 그녀, 자유분방한 그녀, 톡톡 튀는 그녀, 섬세한 그녀, 클래식한 그녀'라는 테마로 일곱 가지 스타일의 주얼리를 선보였는데 마치 CM송 가사와 같이 가볍고 산뜻한 주제는 지금까지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유니크함이 넘친다.

다이아몬드와 유색 젤스톤의 향연, 티파니

지난 8월 홍콩에서 첫선을 보인 티파니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주제는 'Beyond the Blue'. 바다의 생태학 기운과 장엄함을 강렬한 색채의 젤스톤과 다이아몬드로 표현했다. 사진에 등장한 제품들처럼 투명하고 청명한 그린과 블루 컬러가 눈을 사로잡는데, 전 세계의 컬러 젤스톤을 발굴해 새로운 컬렉션으로 선보여 그들만의 숨겨진 매력을 세상에 알리는 티파니의 노력이 돋보였다. 다양한 블루, 그린 컬러의 투르말린 주얼리들은 원석이 지닌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중 쿠프리언 엘바이트 투르말린은 원석 내에 구리가 내포되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티파니 블루' 컬러와 거의 유사한 색상을 띤다. 이렇게 꾸준히 새로운 컬렉션을 위해 원석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티파니를 상징한다고 느껴질 만큼(원석 자체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자연적인 산물임에도) 특별한 컬러의 원석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티파니의 수많은 제품 중에서도 예술적 가치와 유니크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잔 슬럼프제(Jean Schlumberger) 컬렉션은 이번 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화룡정점. 자연에서 받은 모든 영감을 주얼리로 표현하는 예술가인 잔 슬럼프제의 작품이 이번 컬렉션



1 보석과 향수의 공통점을 모작해 아름다운 향기를 형상화한 주얼리로 육감적인 꽃향기가 총명한 정원을 표현한 까르띠에의 소틸레주 드 까르띠에 (Sortilege de Cartier)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링. 2 까르띠에 누벨바그 파리 컬렉션 중 톡톡 튀는 그녀를 표현한, 물결 루주에서 영감을 받은 네크리스. 3 반클리프 아펠 피에르 드 케레테르 컬렉션 중 '플레 드 라피스 라울리 콜라', 화관 모양의 미드나잇 블루 컬러 브로치로 찬란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4 누벨바그 파리 컬렉션 중 '깜찍한 그녀를 표현한 대담한 디자인의 링, 옐로 골드와 라피스 라울리, 크리스프라이즈 와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유니크하다. 5 불가리 고유의 볼드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다비 하이 주얼리 카프리스 인포스토피노 네크리스. 6 사슴을 상징하는 유성, 코페트를 품고 있는 사자를 표현한 리옹 컬렉션. 7 이번 반클리프 아펠 컬렉션의 주요 제품인 '홍강 링 (Pongal Ring)'. 8 블루 카보숄 첫 시바이어 65캐럿을 세팅한 불가리의 '다비 하이 주얼리 포에버 글래머 아이링'. 9 사자 모티브를 정교하게 표현한 사슴의 리옹 인메리얼 브레이슬릿. 10 잔 슬럼프제가 디자인한 타키쉬 태슬 네크리스. 클래식하면서도 아름다운 진가를 보여주는 마스터 피스다. 11 티파니는 생생한 바다를 연상케 하는 아리마린을 블랙 오프스와 매치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12 사슴을 조형해 사랑받고 있는 에-펠 브레이슬릿의 2013년 버전. 13 투르말린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바꾸어 놓은 티파니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아이링. 젤스톤의 매력을 마음껏 드러낸 특별한 컬렉션이다.

인 주제인 바다와 만나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과감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모두를 감동케 했다. 그중 4백84개, 총 1백14.61캐럿의 타키석에 다이아몬드와 옐로 골드, 플래티넘이 어우러져 바닷물 모양의 태슬을 형상화한 '타키쉬 태슬 네크리스'는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잔 슬럼프제는 1968년 자신이 디자인한, 재클린 케네디의 시그너처 주얼리로도 유명한 에나멜 팔찌를 2013년 버전으로 재해석했다. 디자이너만의 시그너처인 볼드한 골드, 2백7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을 함께 세팅해 오묘한 아름다움을 완성한 것이다. 이 팔찌는 제작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티파니 고유의 시그너처 하이 주얼리다.

유니크함과 대범함이 만든 연금술

올해 대대적으로 선보인 불가리의 '다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보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만 이 하이 주얼리의 영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전설적인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원불변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뮤즈가 되었다. 과거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스타일에 현대적인 여배우를 아이콘으로 삼았지만 불가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브랜드 고유의 과감함과 볼드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에 그 어떤 컬렉션보다 클래식하다. 사실 '하이 주얼리'라는 소재 자체가 일상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데다, 스토리를 보면 보통 인도나 아랍의 왕족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담은 것이 대부분이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불가리는 이 모든 기존의 명제를 반박하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하이 주얼리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반클리프 아펠의 경우 주제나 스토리보다 '연금술'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보석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황금 비율로 디자인했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오라를 풍기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삼는다. 희귀하고도 품질 높은 하드 스톤이 서로 절묘하게 어울릴 듯하면서도 과감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하이 주얼리에서만 볼 수 있는 묘미로, 클라우드 아펠은 "모든 보석은 그만의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특별한 보석에 대한 열정이 높다. 올해 선보인 피에르 드 케레테르(Pierres de Caractere, 프랑스어로 '특별함과 개성이 있는 원석'이라는 의미) 컬렉션 역시 이러한 마술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진귀한 스톤에 울드 컷과 섬세함, 대범함을 더해 눈을 땔 수 없는 예술 작품으로 완성한 것이다. 하이 주얼리를 창조하는 과정 자체에는 기존 브

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반영했지만, 주얼리 자체를 보면 기존 디자인들보다 훨씬 유니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지 않았던 옐로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것은 물론, 기존 주얼리보다 볼륨감 넘치는 링들을 대거 선보이며 장인의 섬세한 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 샤넬이라는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에서 시작한 샤넬 화인 주얼리의 2013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옹골찬 사자를 모티브로 한 '수 르 신 뒤 리옹(Sous le Signe du Lion)' 컬렉션. 베니스의 몽상적인 도시 리옹을 사랑한 가브리엘 샤넬의 삶, 샤넬의 아파트에 있는 다양한 소재와 모티브의 사자 오브제, 샤넬의 별자리가 사자자리였다는 것, 베니스의 상징이 사자라는 요소까지 더해 절묘한 스토리로 완성한 새로운 모던 판타지다. 이 역시 하이 주얼리를 완성한 스토리 자체는 디자이너의 과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니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사진 속 디자인을 보면 지금까지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각이 가까운 대담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생활 속의 값비싼 예술, 하이 주얼리 컬렉션

이렇듯 조금은 친근해지고,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현실의 달콤함과 동시에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보석'이라는 우아한 언어로 훌륭하게 표현했다. 과거의 하이 주얼리들이 영원한 생명력과 신성함을 염원했다면, 현재의 하이 주얼리는 과감함과 완벽함의 조화를 추구한다. 물론 어느 것이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얼리 하우스의 도전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물론 수백 년간 쌓아온 완성도에 대한 치열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모던'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도, 성취도 없었을 것이다. 과거의 가치를 이어가며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세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올해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백화점을 건다가 쇼윈도를 볼 때나, 잡지의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에 한 번쯤 들여다보고 즐겨볼 만하다. 모던한 새로운 주얼리의 하모니가 우리를 하여금 주얼리라는 예술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IS 에디터 매미진**



celebrate You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전하고, 영원을 노래할 때 그 특별함을 더욱 아름답게 간직하게 해줄 셀러브레이션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일관처럼 디자인해 축약에서도 아름다운 라피넨드 라벨리온 링 2백만원대 **타사키**, 유색석을 부드러운 카보숑 컷으로 세팅한 메디테라니 에인 컬렉션 링, 보랏빛 에미시스트 씨시 링, 블루 토퍼즈를 매칭한 씨시 링 3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다이아몬드와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세라믹을 결합한 퀴트르 링 1천2백50만원 **부세론**, 못에서 영감을 받은 자스트 영 골루 링 2백70만원대 **까르띠에**, 옐로 골드와 초콜릿 골드 두 가지 골드를 매칭한 퀴트르 링 2백25만원 **부세론**, 블루 모티브로 이코아 진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링 3백30만원대 **타사키**, 오픈워크 기법으로 동백꽃을 표현한 카멜리아아주르 링 7백65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최상급 이코아 진주를 알칼로 세팅한 벨런스 3링 1백90만원대 **타사키**, 컨스탈레이션 위치 배열에 있는 4개의 플라우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링, 레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은 3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링은 1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마치 한 송이 꽃이 피어난 듯 가운데 1개꽃에 달하는 오벌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에어 링 7천5백57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3개의 완을 지닌대로 배치한 씨글렛 링 9백만원대 **타파니**, 1개의 퍼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본 모티브의 브글드 다이아몬드 링 6천7백37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네 가지 골드를 결합한 퀴트르를 래식 링 4백82만원 **부세론**, 4개의 잎으로 이루어진 꽃을 형상화한 빅토리아 알터네티 링 2천만원대 **타파니**, 4개의 프롱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심플한 솔라테어 이브르노아 링 2백만원대 **다이아나**, 꽃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곡선 링이 마치 겹쳐 있는 듯 보이는 아무아워브 링, 5백만원대 **오메가**, 사랑의 결속을 상징하는 스크루 문양이 새겨진 리브 링, 4백40만원대 **까르띠에**, 동백꽃을 심세하게 묘사한 필드 까멜리아 링 1천7백30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블랙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트로폴리탄 드림 링 3백만원대 **다이아나**, 사이드에 불가리아 로고 새겨져 있는 비, 제로원 컬렉션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백20 링 6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링 1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행운을 상징하는 유성 모티브의 코메트 링 4천3백52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밴드의 양끝이 하나로 50자 두 사람 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하모니 링 3백만원대 **타파니**, 플라타네로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매칭한 셀러브레이션 링 6백만원대 **타파니**,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팅한 심플한 디자인의 파블라 링 7백만원대 **다이아나**, 밝이 빛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라이트 링, 밴드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각 1백만원대 모두 **다이아나**, 에디터 **베미진**

타파니 02-547-9488 오메가 02-511-5797 불가리 02-2056-0172 까르띠에 1666-7277 타사키 02-3461-5558 다이아나 02-3497-8972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부세론 02-543-6523



CÉLINE

Beautiful face

오로지 다이얼의 아름다움만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시계가 있다. 얼굴 하나만으로 세상을 사로잡은, 페이스가 아름다운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카르띠에 발롱 볼루 드 카르띠에 워치** 모던한 에를 워치로 각광받는 카르띠에의 시그니처 워치. 파란 공이라는 의미로, 우주 가 탄생한 순간부터 이루어진 공간의 명칭과 시간의 연속을 의미한다. 작은 조각들을 연상케 하는 볼륨감 있는 곡선 케이스, 블루 컬러 키보스 킷 시피어 어로 장식한 크라운에 로마자 다이얼을 더해 우아하고 웅장하다. 유백색 실버 기호세 다이얼과 골드의 매치가 아름답다. 문의 1566-7277

오메가 피제 로얄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키본 눈을 사로잡는 팔각형 베젤의 강인한 디자인은 워치메이커들의 스포츠 워치를 상징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시계 케이스에 최초로 도입한 옥타곤 형태의 케이스는 단 8개의 스크류만으로 고정됐지만 그 어떤 충격에도 절대 분해되지 않는다. 오메가 피제가 독점 개발한 포지드 키본과 블랙 세라믹을 사용해 견고하지만 가볍다. 애플 오양의 기호세 패턴 다이얼이 독특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717

에지 르플르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듀얼 윈드 무브먼트를 탑재한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를 오픈하트 다이얼로 표현해, 복잡하지만 간결하고 클래식함이 느껴진다. 6시 방향의 스몰 다이얼은 정밀 세컨드 디스플레이로 1초에 1회전 해 1/6초 단위의 세분화된 시간까지 표시한다. 골드 핸즈와 블루 핸즈는 크로노그래프를 표시한다. 5천백만원대. 문의 02-756-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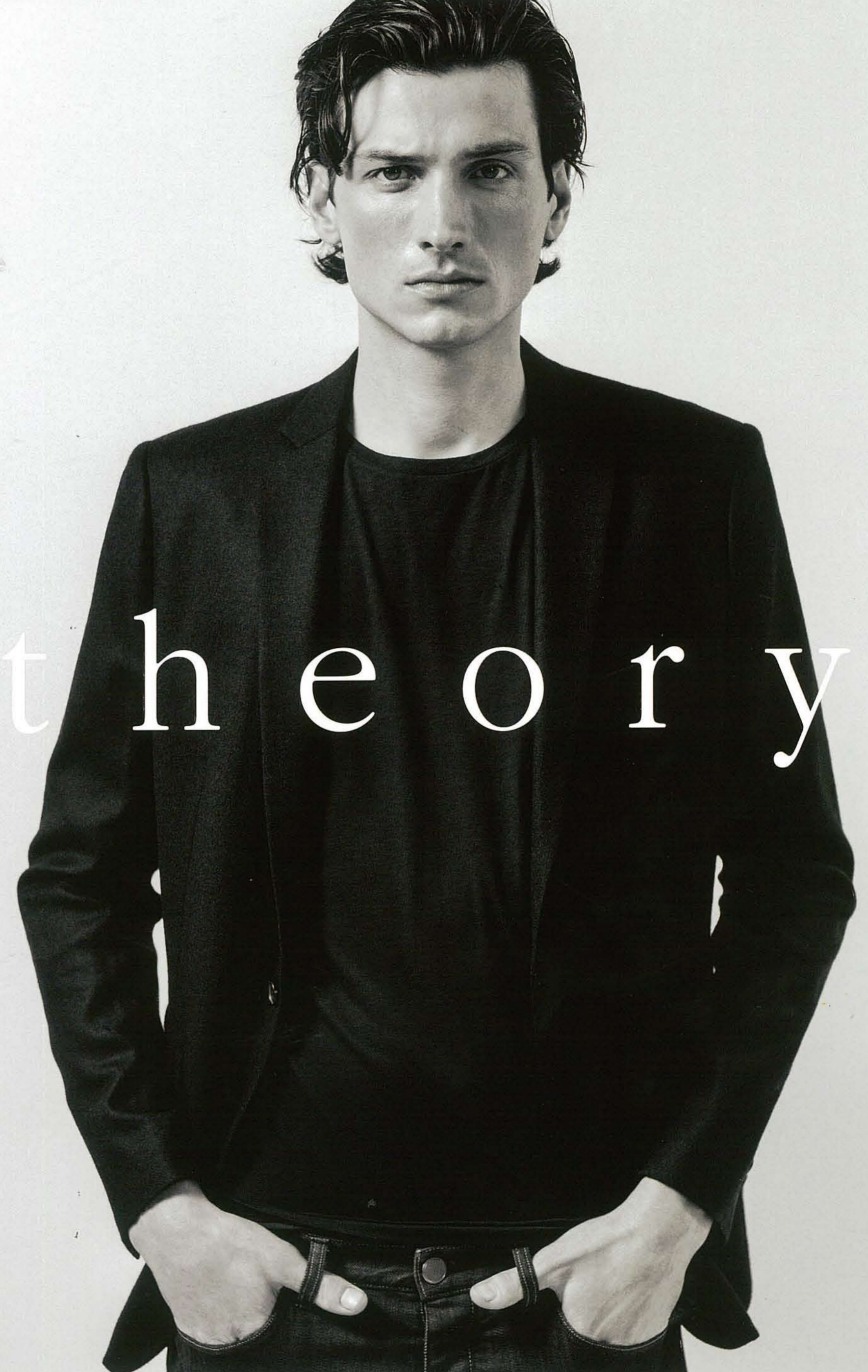
파타리 루미노르 1950 10데이즈 GMT 두터운 마나아음을 가느른 이젤리 아 워치 브랜드 파타리의 박력 넘치는 워치. 이탈리아 해군 장수 부대의 요청으로 물속에서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한 워치로, 이를 위해 사용된 황광 물질이 바로 루미노르다. 투박하면서도 남성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케이스 오른쪽, 크라운을 보호하는 가드에서 다이얼 워치 명가의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3449-5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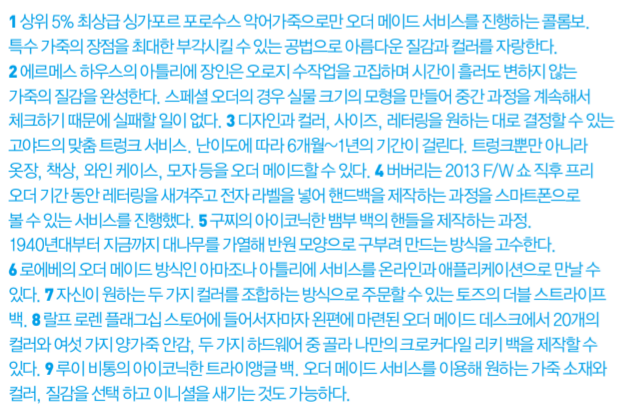
블랑팡 발라데 하프 헌터 컴플리트 칼린더 브랜드의 얼굴이자 클래식 워치의 아이콘인 블랑팡 발라데 컬렉션에 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한 유서 깊은 워치다. 기호세 패턴과 로즈 골드 로마자, 관항을 그려 배럴인 이리비어숫자와 6시 방향의 문패까지 장식한 아름다운 뛰어난 기능은 모두 갖췄다. 백 케이스를 오픈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다. 3천4백만원대. 문의 02-3438-6268

브레게 클래식 5717 오리온 미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표현한 3개의 다이얼로 선보이는 오리온 컬렉션 중 아시아 대륙을 묘사한 다이얼이다. 물결무늬 패턴의 인그레잉과 반투명한 레커 작업, 실버 도금과 수공 인그레잉한 골드 소재 밤빛 인디케이터가 우아하게 어우러진다. 1억원대. 문의 02-3438-6218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XVII 여섯 번의 달 착륙 미션을 수행한 스피드마스터의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 1972년 최초의 달 착륙 4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로 아폴로 XVI 패치와 같은 디자인의 925 실버 다이얼이 탑재되었다. 다이얼에는 달 착륙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 더욱 특별하다. 1972개 한정 판매한다. 8백만원대. 문의 02-511-6797 에디터 **배미진**

t h e o r y





my dream Bag

내가 꿈꾸던 나만의 명품 가방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순간. 하이엔드 럭셔리 하우스의 스페셜 오더 메이드 서비스라면 가능하다.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남과 차별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스페셜 오더 메이드 백의 세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더 메이드 가방

수십 개의 샘플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재를 선택하고, 컬러를 정한다. 가방 안쪽에 포켓을 달고 핸들 소재와 버클을 바꾸고 나만의 미니멀을 넣는다. 꿈에 그리던 나만의 가방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지난 7월 파리에서 열린 스페셜 오더 워크숍에 다녀온 에르메스 홍보 담당자는 주문 제작 가방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다. "일본에 사는 한 사인은 소재를 너무 좋아함 나머지 사과 형태의 가방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어. 안 쪽에는 스틸링 실버로 소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죠." 에르메스 라벨이 붙은 사과 가방이라니 상상이나 해본 적 있는가. "버킨과 캘리 백 안에 생루이 와인 진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거나 자신의 딸이 그려준 그림을 프린트로 압출해달라는 사람도 있어. 가족 모두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단종된 파우치와 똑같은 디자인을 10개 만들어달라는 의뢰도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독특한 고객들의 의뢰 방식은 이틀리에 의 장인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데, 디자인을 받으면 실현 가능한 스타일인지, 머릿속에서 그려던 가방과 일치하는지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중간 과정을 체크하며 수정을 거듭한 후 완성한다. 고객들이 의뢰한 새로운 디자인 중 실제로 상품화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는 국내 고객이 캘리나 버킨의 컬러와 가죽을 바꾸거나 미니멀을 새기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경우. 한마디로 국내에서는 기존의 제품에 자신의 취향을 보완하는 정도지만, 외국에서는 기존에 없던 디자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한편 루이 비통은 맞춤 제작 가방이 외산에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적도 있다. 작년 4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자신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연설을 했는데, 이는 루이 비통의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 '오트 미르퀴네르' 방식을 통해 제작된 라킽 백이라는 사실이 급속도로 퍼진 것.

오트 미르퀴네르의 라킽, 노예, 트리아앵글, 밀라리스, 스티머로 구성된 다섯 가지 형태와 27개의 컬러 중 하나를 고르고 8종류의 걸림과 2종류의 안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죽의 질감과 소재에 따라 한없이 세분화되기에 4만 가지라는 종류가 나올 만큼 엄청난 경우의 수가 생긴다. 가죽은 6개월, 악아나 파이톤 등 이그조틱 레더는 1년이라는 제작 기간이 걸릴 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 말프 로렌은 일찍이 메이드 투 오더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리키 백을 악어가죽으로 제작된 크로카다일 리키 백을 대안으로 선보이고 있다.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난 이류자는 이 서비스는 오더 메이드 전용 데스크에서 이루어지며, 리키 백을 위한 한 스텐치 북을 보면서 4개의 사이즈와 20개의 가죽 컬러, 6종류의 악어가죽 안감, 2개의 하드웨어 중에서 선택해 오직 나만을 위한 리키 백이 탄생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악어 가죽에 일각이 있는 콜롬보에서도 오더 메이드 서비스를 진행한다. 최상급 상급으로 포로수스 악어가죽의 다채로운 컬러와 질감, 광택을 확인할 수 있는 카바린 컬러 스텐치 북이 준비되어 있는데, 악어가죽의 종류만 해도 세 가지에 이르고, 도마뱀, 파이톤, 오스트리치 등 다루기 어려운 이그조틱 레더를 완성도 높게 선보여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구찌의 경우 뉴 밸브 백에서 시작된 오더 메이드 서비스를 백이 가죽과 스티플 백까지 확장시켰다. 타조, 악어가죽 등 진귀한 가죽은 물론 메달 디테일과 가죽의 광택도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다. 토즈는 취향과 개성이 분명한 남성을 위해 더블 스트라이프 컬러 백의 스텐치 북을 선보이며, 컬러 매치를 원하는 대로 변경해준다. 비용은 추가되지 않지만 계절이 두 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들지 않아도 좋을 느긋한 기다림이 있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만 걸러 있다면 집에서 오더 메이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 예로, 로에베는 아마존나 이틀리에에서 진행되는 커스텀 메이드 방식을 온라인에 옮겨 왔는데, 로에베 아마존나 이틀리에 웹사이트나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마존나 백을 제작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마존나 백을 클릭한 후 선택 사항에 맞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인데, 카프, 고트, 두 가지 종류의 악어, 오스트리치 중에서 가죽을 선택하면 19가지 다양한 컬러와 핸들 소재, 가방의 코너 패치까지 자유자재로 조합해 약 13만분의 1 확률을 지닌 나만의 가방을 갖게 된다. 미작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가방에 넣고 싶은 미니멀을 입력하면(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견적까지 뽑아 집까지 배송해주니 정말 스마트한 세상이 아닌가. 또 혁신적인 디지털 이벤트를 전개하는 버버리는 2013 F/W 컬렉션이 끝난 직후 일주일 동안 프리 오더를 한 고객에게 가방 안쪽 메탈 장식에 이름을 각인해주는 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전자 레터링(ERF)을 넣어 장인이 핸드백을 제작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이엔드 명품 하우스의 오더 메이드 서비스는 남들과 차별화된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세분화된 선택 사항을 준비하고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프라이빗한 일대일 방식으로만 여겼던 커스텀 메이드가 다수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도 정착했다는 사실은 맞춤 제작 방식이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확실한 잇 백 트렌드와 넘쳐나는 복제품에 신물 난 이들에게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음은 당연지사. 에디터 이예진



TED BAKER

LONDON

: TAKE THE SCENIC ROUTE

2013년 테드 가을 겨울 컬렉션의 올레길로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뛰어난 색감, 숨막히는 프린트, 스토리가 살아있는 옷감은 여러분의 여정마다 놀라움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 서울 남성 7층, 여성 5층

롯데 백화점 - 평촌점 남 여성 4층

대백 프라자 - 대구 남성 7층, 여성 4층

supreme Frame

자신만의 남다른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웨어 브랜드 론칭 소식을
들고 있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감각적인 디자인,
견고한 디테일로 주목받는 뉴 프레임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플리토이 by 커스텀** 알렉
미굴리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던 아카라 이사오라리의 핸
드 메이드 아이웨어 브랜드. 장난감을 연상시키는 선명한
컬러와 카팅이 독특한 프레임은 어른들의 호기심을 자극
하기에 충분하다. 59만원. 문의 070-4418-0908 **아이
반 7285 by 나스월드** 40년 전 일본에서 입는 안경을 콘
셉트로 했던 아이반 크래프트 사립조를 무릎과 디자인을
재구성해 탄생한 아이반 7285. 얼굴을 안정감 있게 감싸
는 형태와 클래식한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40만원대. 문
의 02-512-2225 **솔트 by 유틸리프 W** 2006년 미국에서
탄생한 솔트는 아이웨어를 비롯해 의류, 액세서리까지 독
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다. 톤 다룬된 차
분한 컬러가 없고, 부드러운 형태의 프레임으로 담백한 멋
을 제안한다. 40만원대. 문의 02-6911-0845 **아이F30
by 록스타일** 비즈나스맨을 위해 태어난 국내 아이웨어 브
랜드. 알고 남다른 프론트와 미니멀한 디자인, 메탈 소재가
자주 쓰이기도 세련된 인상을 준다. 9만1천원. 문의 02-
3016-8200 **그라피** 일본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인 그리
피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브리지와 다양한 컬러를 패치
워크 형태로 뒤섞은 프레임으로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8만원. 문의 070-8734-
3233. **탈스 아이웨어** 원 포 원(one for one) 기부를 실천
하는 브랜드 탈스에서 아이웨어를 론칭했다. 안경 역시 구
매할 때마다 한 사람의 사랑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패
션도 즐기며 뜻깊은 활동에도 동참할 수 있다. 20만9천원.
문의 1544-5344 **가렛 라이트 by 한독 옵틱** 2010년 클
래시한 디자인 콘셉트로 탄생한 캘리포니아 브랜드로, 올
리버 피플스 창립자의 아들인 가렛 라이트가 론칭했다. 최
고의 품질과 내구성을 위해 이탈리아, 일본의 초산 섬유소
와 반티지 아세테이트로 제작하고 독일에서 가지는 부품으
로 완성도를 높였다. 40만원대. 문의 02-546-0642 **디
스케이드2 by 세인 I.T.C** 이세 국내에서도 디스케이드2
의 인기를 만날 수 있다. 과감하지만 절제된 디자인, 반티
지와 위트를 자유롭게 믹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근대
로 담아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8-8310 **라인트
by 시원 아이웨어** 정밀 레이저 용접 특허기술을 획득한 라인
이브는 알레르기 프리, 헝상거림 기능을 갖춘 아이웨어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특히 안경받침, 나리별 표면 그늘의 생
물을 분석한 후 유연하게 얼굴을 감싸는 템플 커브를 구현
해 동양인 두상에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70만
원대. 문의 02-565-6940 **에디터 아이엔**

스타일리스트 박건정

스타일리스트 박건정

BIOThERM HOMME

세계 1위*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 비오템 음브



지금, 무너진 남자피부를 탄탄하게 재건하라 남성 프리미엄 안티-에이징의 완성

FORCE SUPREME 포스 수프림 주름 개선 - 탄력 증진 - 피부 장벽 강화

- 주름 개선: 아데노신 성분이 눈에 띄는 깊은 주름 개선
- 탄력 증진: 블루 알개 성분이 피부 탄력을 팽팽하게 재건
- 피부 장벽 강화: 활성 스킵 플랑크톤이 피부 자연 방어력 강화

4주 만에 느껴지는 피부 변화
 • 피부가 탄탄해졌다 — 93%* • 피부에 영양이 공급되었다 — 95%*

포스 수프림의 핵심성분, 블루 알개관?
 35억년 전 탄생 후 끊임없는 번식과 자생력으로 생존하여 생명력과 영양이 가득한 혁신적인 성분



주름 개선
가능성 입증

sensual Men

여자들은 유독 남자의 향에 민감하다. 특히 부드럽고 섹시한 향이라면 더더욱. 빠져들 것만 같은 마성의 눈빛과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눈길을 사로잡는 향수 모델과 파워풀하고 관능적인 남성 향수의 완벽한 하모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길티 블랙 우르모 X 배우 크리스 에반스 가장 섹시한 향수상, 줄리아 왕수상 등 35개의 수상 경력이 있는 길티 부르 울모의 새로운 라인인 길티 블랙 향수. 기존 라인에 그린 코라멘다(고수)와 아로마틱 라벤더를 첨가해 깊고 유혹적인 향을 발산한다. 위엄이 느껴지는 블랙 컬러 보틀과 자유분방한 그린 컬러 유리를 접목해 클래식함과 젊은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도시적인 아로마틱 후재로 향으로 트렌디하고 활기찬 남성에게 추천한다. 50ml 9만4천원. 문의 02-2077-5609

다음 울모 X 배우 로버트 패틴슨 태엽과 수트를 입은 남성을 연상하여 완성한 모던하고 세련된 우디 계열 향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디, 아로마틱, 피우더리한 향을 결합해 섹시하면서 순수한 향을 완성했다. 롬 노트로는 보를 루즈 라벤더를, 마들 노트엔 투스칸 아이리스 애플무트를, 베이스 노트엔 아티비 베네베로를 주요 향료로 사용했다. 50ml 8만7천원. 문의 02-3438-9537

파코라반 인벤티스 X 락비 선수 닉 영웨스트 라틴어로 정복되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인벤티스. 남자의 상이 지 여자들의 영원한 판타지인 긴장한 첩자간을 모티브로 탄생한 향수로, 파워풀하고 강렬한 향이 돋보인다. 기존의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의 스포티 향수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산뜻한 머린 계열의 아로마틱 롬 노트와 우디 계열의 브드 노트를 결합해 관능적인 남성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스포츠맨상의 상징인 트로피 모양의 보틀이 소장품으로도 매력적이다. 50ml 7만3천원. 문의 02-3443-1805

몽블랑 레전드 X 모델 사이먼 클락 1백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몽블랑의 DNA와 세계관을 대변하는 우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 향수. 0클라크 베르가모트, 프레스지 자스민, 로즈, 샌달우드, 톱카벤을 조합한 우디 후지향으로, 중후하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맨을 연상케 한다. 깊이 있는 블랙과 실버로 부드럽게 차려낸 보틀엔 브랜드의 시그처 로고를 중앙에 배치해 럭셔리함을 더했다. 50ml 8만원. 문의 080-800-8809

블가리 맨 익스트림 X 배우 에릭 바나 문명과 권력을 상징하는 도시 로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수. 웅장한 고대 로마 건축물을 모티브로 한 강인한 이미지의 실버 보틀과 화이트 우디 프레스지 계열의 향취가 모던한 남성의 카리스마를 표현한다. 상쾌한 베르가모트와 선인장 수액, 핑크 그레이프 프루츠가 지중해의 산뜻한 향을, 깨끗한 나뭇잎의 화이트 프리자리아와 과테말라 카디움, 베제릴 앵버가 클하면서 부드러운 남성의 파스칼을, 발사 우드와 베네베로, 벤조인이 깊고 진한 우디 향을 더해준다. 60ml 8만6천원. 문의 080-990-8989

임성로랑 톰프 임성로랑 X 배우 올리비에 미르타네즈 원초적인 남성의 관능미를 표현한 향수로, 부리는 순간 산뜻하고 깨끗한 느낌의 시트러스 향이 첫 향으로 다가온다. 스파이스한 잔저 향과 우아한 바이올렛 향이 결합해 모던하고 세련된 무드를 더하고, 그 뒤에 깊은 우디 향이 은은한 여운을 남겨 부드러운 남성미를 극대화한다. 볼트와 노트를 완성화한 보틀은 자신감 넘치는 남성의 모습을 상징한다. 60ml 8만3천원. 문의 080-347-0089

존 바버토스 플래티넘 에디션 X 모델 앤드루 스미스 세련되고 화려한 보틀 디자인만큼이나 매력적인 향취를 지닌 플래티넘 에디션. 특 쓰는 스파이스한 페퍼 향에 강렬하고 싱콤한 감귤 향을 더해 코를 자극하고, 시간이 지남수록 깊어지는 우드와 레더, 리치향과 따스한 앵버 향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125ml 11만9천원. 문의 02-3443-1805 에디터 권유진

Mercedes-Benz Perfume

The first feminine fragrance



mercedes-benz.com/perfume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Mercedes-Benz

롯데백화점 북점 02-772-3437 / 노원점 02-950-2155 / 미아점 02-944-2576 / 중동점 032-320-7141 / 원시점 031-909-3142 / 부덕점 031-738-2160 / 부산점 051-668-4171 / 안산점 031-412-7786 / 광주점 062-606-2726 / 고양점 031-462-2158 / 부평점 032-452-2176 / 구리점 031-550-7134 / 청원점 055-279-2919 / 현대백화점 북점 02-348-6225 / 신촌점 02-3145-2030 / 송동점 032-632-2131 / 용인점 052-228-0151 / 부산점 051-667-0160 / 천호점 02-2225-7199 / 김해점 031-822-3262 / 미아점 02-2117-1144 / 푸죽점 02-3467-6786 / 부안점 031-667-0160 / 오세백화점 경기점 031-695-1285 / 진안점 032-430-1334 / 마산점 052-240-1258 / 부산백화점 051-745-1209 / 영등포점 02-2639-4152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67-7170 / 천안점 041-554-5777 / 대전백화점 042-489-3777 / 안주점 055-791-1168 / AK몰라자 구로점 02-855-8111 / 수원점 031-240-1158 / 통영점 031-802-2125 / B7갤러리 부산점 031-333-7211 / 롯데백화점 대구 053-609-2589 / 마리오미몰스점 02-206-2205 / 롯데백화점 광주 043-717-2589 / 롯데몰점 파주 031-960-2946 / 롯데몰점 김해 055-900-2700

공식수입원 (주)세이오인터내셔널 www.ceo.co.kr 문의 080-363-5454



Showy shoes

한껏 멋 부린 남성 구두가 디스코 음악에 맞춰 온몸을 들쭉거리게 한다. 과감한 디테일로 당신의 스타일 지수를 화려하게 높여줄 화려한 남성 구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슈즈 라인을 따라 장식한 스타드와 동성한 태슬 장식이 크림 컬러 스웨이드와 만나 부드럽게 융화된 로퍼 2백43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신발 전체를 뾰족한 스타드로 가득 채운 과감한 스타일의 슬림은 슈즈 2백5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를 고풍스러운 장식과 자연스럽게 믹스한 슬림은 슈즈 1백78만원 **파치오티**, 영국의 현대미술가 채프먼 형제와의 작업으로 탄생한 검은색 벨벳 슈즈 1백90만원대 **루이 비통**, 두꺼운 굽과 볼드한 버클 장식이 연출하는 투박한 실루엣을 즐겨보자, 1백20만원대 **발렌시아가 by 무이**, 꽃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은 레드 슬림은 슈즈 1백33만원 **알렉산더 맥퀸 by 분더샵 맨**, 날렵한 라인의 블루 컬러 워킹 팀 슈즈 73만원 **폴 스미스**, 레오파드 패턴과 스타드, 송치와 가죽의 믹스 매치가 돋보이는 슬림은 슈즈 1백65만원 **필립 플레인**, 에디터 **이예진**

무이 02-3446-8074 루이 비통 02-3432-1854 파치오티 02-545-8757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필립 플레인 02-544-9132 분더샵 맨 02-3444-3300 폴 스미스 02-3447-0278

스타일링: 박건우

classy Punk

클래식을 모던하게 비튼 비대칭 테일러링과 펑크 패션, 과감한 프린트와 믹스 매치로 대변되는 영국의 살아 있는 패션 전설 비비안 웨스트우드, 브랜드의 오프 쿠티르 라인인 골드 라벨과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레드 라벨에서 2013 F/W 컬렉션을 지배한 패턴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입었을 때 몸을 착감치는 완벽한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코트 2백98만원, 안에 입은 블라우스와 체크 스커트 각 1백18만원, 63만원,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라벨**, 타탄 체크 98만원, 슈즈는 클래식 제품으로 가격 미정,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오른쪽) 구조적인 패턴의 카디건과 니트 각 1백78만원, 1백82만원, 핀 스트라이프 롱 스커트 1백78만원,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의자에 놓인 숄더지 가죽 클라치백 각 1백78만원, 행어에 걸린 에틸락한 재킷과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라벨**, 블랙 재킷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트렌드를 선도하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13 F/W 컬렉션

앞서 '2013 F/W Key Looks' 기사를 본 독자 여러분 이번 시즌 트렌드를 단번에 알아차렸을 듯, 음침한 분위기의 필름 누이트 속 여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신비롭고 관능적인 레이디라이크 룩과 생색을 이루는 트렌드는 바로 '프린트'다. 타탄, 그리드, 하운즈투스 체크 등 패션 사조에서나 볼 법한 체크 패턴이 무수히 쏟아졌고, 굵고 가는 스트라이프를 수트와 팬츠에 입혔으며, 정원을 연상시키는 각종색 꽃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4대 패션 위크의 컬렉션 룩을 분석하는 중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도 이와 같은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는데, 파리에서 열린 골드 라벨 쇼는 물론, 런던에서 선보인 레드 라벨의 쇼에서도 공통적이었다. 먼저 골드 라벨은 중세 유럽의 풍경을 그린 일러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에스닉한 패턴을 판초에 입히거나 체크 패턴 술에 도트 무늬 원피스를 매치하는 방식이었다. 레드 라벨은 볼드한 스트라이프, 대담한 물결 패턴을 주로 아우터에 입혔으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타탄 체크 스커트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디자이너이자 펑크 패션의 전설인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71년 영국 런던의 킹스 로드에 위치한 작은 매장에서 브랜드의 역사를 열었다. 시종마다 그녀만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인터리어와 콘셉트로 대중에게 다가갔고, 1984년 '5명의 베스트 디자이너'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우뚝 섰으며, 올해의 영국 최고 디자이너

상을 2회 수상하기도 했다. 정상에 오른 후 지금까지 최고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구축했다. 1993년에는 여성복을 골드 라벨과 레드 라벨 두 라인으로 나누었는데, 골드 라벨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난 오프라벨 라벨로 최고급 소재와 완벽한 테일러링이 조화를 이루는 오프 쿠티르 특성을 반영했다. 반면 레드 라벨은 컬러와 소재, 실루엣을 보다 웨어러블하게 해석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젊은 여성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남성 컬렉션을 비롯해 앵글로미야, 액세서리 컬렉션, 향수까지 라인을 확장하며 토털 브랜드로 거듭나기에 이르렀다. 지칠 줄 모르는 그녀의 넘치는 열정은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명성을 이어가게 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나이가 인종, 환경, 노동 등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이슈를 파격적이고 대담한 컬렉션으로 풀어내며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매장은 국내에서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등 백화점 18곳에 입점되었는데, 특히 현대백화점 본점 3층과 무역사점 3층, 목동점 2층은 오프 쿠티르 라인인 골드 라벨과 젊고 감각적인 레드 라벨을 동시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스토어니 기대해 볼 것. 다른 매장보다 다양한 셀렉션과 익스클루시브 아이템까지 만날 수 있어 브랜드의 두터운 마니아층과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의 02-3438-6292 에디터 **이예진**

스타일링: 박건우



Modern Sportism_ Louis Vuitton

Grey Impact_ Ermeneizildo Zegna

Stripe Print_ Burberry Prorsum

Mannish Mood_ Paul Smith

Over size Coat_ Stella McCartney

Black & White_ Dior Homme

Urban Outdoor_ Ralph Laurent

Padding Chic_ Emporio Armani

Check & Ladylike_ Prada

Midi skirt_ Calvin Klein

Punk Spirit_ Saint Laurent

Check Print_ Celine

1940's Retro Dress_ Gucci

Glamorous Fur_ Fendi

2013 F/W Key Looks

포멀 룩과 캐주얼 룩의 절묘한 믹스 매치를 기억하라

이번 시즌 남성 컬렉션은 스포티즘과 테일러링을 결합한 새로운 포멀 룩이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세련된 일상복으로 인착한 어떤 아웃도어 룩, 젊은 감성을 담은 스트리트 룩까지 드레스 업과 드레스 다운의 경계를 허무는 폭넓은 레이어드가 공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루이 비통은 포멀한 핏 스트라이프 수트에 카디건 더블코트와 밀리터리 무드의 봄버 점퍼 등을 자유롭게 믹스하고 로프 벨트와 워크엔드 백을 매치해 현대적인 트레일 룩을 선보였다. 에르메스는 포멀한 재킷에 트레이닝 팬츠와 기능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트레이닝 슈츠 등 아웃도어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아르마니 역시 하이테크 소재와 테일러링을 결합한 시크한 아웃도어 룩을 보여주었음은 물론이다. 이번 시즌 컬러 스펙트럼은 그레이와 화이트를 중심으로 톤 다운된 갈도 높은 블루와 마스터드, 카키, 오렌지 등으로 확장되었다. 화이트는 블랙과 매치해 극명한 대비를 주는 것이 가장 세련된 방법이며, 위아래를 하나로 통일하는 칼라 매치 또한 영두에 들 것. 여성 컬렉션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다채로운 프린트와 하이 웨이스트 실루엣은 공통적으로 남성 컬렉션에도 적용되었다. 글렌, 타탄, 하운즈투스 등 클래식한 체크 패턴이 볼드해지고 과감한 칼라로 변주되었다는 점이 포인트. Z 제너, 닐 바렛, 폴 스미스, 버버리 등에서 선보인 그래픽적 패턴과 스트라이프, 레오파드 등도 뒤를 이으며 패턴 유행에 힘을 실었다. 남성복의 허리선이 높아졌음은 돌체앤가바와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낱두의 배기 팬츠에 짙은 카디건과 베스트를 매치해 허리 라인을 두드러지게 하는가 하면, 허리의 벨트 고리를 이례적으로 달아 주름을 잡은 하이 웨이스트 팬츠로 새로운 실루엣을 제안했다. 그 밖에 생 로랑과 랑방에서는 텍스처가 다양한 블랙으로 정제된 핑크 룩을 보여주었고, 에트루와 베르사체, 펜디에서는 와일드한 타투를 더한 모피 코트로 럭셔리한 무드를 고조시켰다.

필름 누아르 속 레이디라이크 룩과 다채로운 프린트의 향연

여성 컬렉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실루엣과 무드는 1940년대를 재배한 필름 누아르의 여주인공에게서 영감을 받은 레이디라이크 룩 한 편이 허허막 영화를 보는 듯했던 루이 비통의 쇼는 라제리, 새틴 롱 슬립 드레스, 실크 기운 등으로 이어지며 농밀한 누아르 스타일을 완성했다. V 존을 강조한 오픈 숄더 드레스(구찌), 허리를 집속하게 조인 풍성한 셔플 스커트(디올, 로사사, 니나 리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펜슬 스커트(디스퀘어), 프로엔자 스킨리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실루엣과 길이의 스커트가 등장해 자신의 체형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을 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 실루엣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프린트 가운데 민장일치로 꼽는 것은 단연 체크. 동시대의 멋쟁이 여성들이 무한 신뢰하는 피비 파일리와 미우치아 프라다, 스티븐 맥카트니가 체크 프린트를 메인 룩으로 내세웠으니, 클래식한 강연 체크부터 그리드 체크, 스코틀랜드 전통 프린트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타탄 체크까지 코트와 스커트, 폴오버 등 이나나 이루어 할 것 없이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게 격자무늬를 새겨 넣었다. 지난 시즌을 책임졌던 오버사이즈 트렌드 역시 유행했다. 작년에는 뽀뽀하게 억인 부진포 스타일의 소재가 각광받았다면 올해는 캐시미어, 울, 알파카 등으로 연출한 유연한 실루엣에 주목해야 할 것. 알렉산더 왕이나 까르뱅, 스티븐 맥카트니에서 볼 수 있듯 더블 버튼이나 히든 버튼 어깨선을 한 번 이상 떨어뜨려 동글게 처리한 스타일이 부각되었다. 퍼 역시 오버사이즈 형태로 풍성하고 화려하게 거듭났다. 생 로랑은 플리워 프린트 유희스와 체크 셔츠로 반항기 충만한 핑크 스타일을 선보였으며, 펜디는 다양한 칼라를 패치워크 형태로 뒤섞은 모피 코트와 가방 등으로 대표작인 모피 하우스의 명맥을 이어갔다. 아울러 드리스 빈 노트의 잘 재단한 핏 스트라이프 수트와 폴 스미스, 요지 아미모도 등에서 선보인, 여유 있는 실루엣의 팬츠 슈트로 대변되는 매니시 룩도 놓치지 않도록, 에디터 이예진

High waist Pants_ Vivienne Westwood

Super moisture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성화수 자용성 진분유**(30ml 18만원) "자용성 진분유에 들어 있는 인삼 중추유가 피부 자체의 힘을 길러 건조함을 막고 뽀루지나 주름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케어하는 한방 에센스 오일이며, 인삼 중추유는 인삼 중추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채취할 수 있고 하나의 중추에서 0.004mm에 얹지 못하는 매우 귀한 성분이다. 여기에 참깨를 생으로 압착해서 얻은 에센셜 성분인 마유의 탁월한 보습력이 합쳐진 세포의 지질을 단단하게 채워 넣어 피부에 윤기를 돌게 하고 촉촉함이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빈센트**성화수 브랜드 메-자 문의 080-023-5454

에스티 로더 뉴트리셔스 레디언트 바이올리터 2-스텝 트리트먼트(9만원대) "젓은 아교과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와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 강력 추천하는 마스크 팩이다. 항산화에 탁월한 석류와 수피 배아 복합체가 피부 속에 쌓인 독소를 빠르게 배출해 수분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공급해주시요, 젤과 클레이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 있는데 먼저 클레이 마스크로 과다한 피지 분비를 정제하고 모공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집중적인 보습을 위해 젤 마스크로 마무리하면 촉촉함이 배가됩니다." **▶이소윤**(에스티 로더 교육부 대리) 문의 02-3440-2772

카일 올트라 하이얼 마이크로 세럼(50ml 4만9천원) "브랜드의 넘버 원 수분 라인인 올트라 페이스의 첫 수분 세럼인 만큼 40년간 증명된 보습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으며, 빗하 추출물과 사막 식물의 뛰어난 보습 성분이 미세한 분자 형태로 되어 있어 피부 깊숙이 수분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다음 단계에 올트라 페이스 크림을 덧바르면 최상의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소연**(카일 홍보팀 대리) 문의 080-022-3332

록시앙 이모르텔 크림 마스크(125ml 10만원) "중부한 버터 타입 집합의 마스크 제품으로, 지중해 연안의 코르시카 섬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이모르텔 에센셜 오일이 가득 들어 있으며, 록시앙의 마이크로 캡슐 전달 시스템으로 완성된 이모르텔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돌게 해 하루 종일 산뜻함을 유지시켜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 A와 비타민 E 덕분에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사바버가 피부결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줍니다." **▶박예슬**(록시앙 홍보팀) 문의 02-3014-2966

입생로랑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30ml 14만원) "입생로랑 스킨케어에 대표하하는 이 세럼은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글리칸액티브™가 고농축 함유되어 빠른 시간 내에 불규칙한 유분과 수분 균형을 정상화해줍니다. 특히 피지층 속 수분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의 밀도를 높여 눈에 띄는 플럼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세럼 1개로 보습은 물론 주름을 개선하고 갇지 피부 노화를 다스리는 스마트한 올인원 세럼입니다." **▶한원선**입생로랑 교육부 트레이닝 매-자 문의 080-347-0089

클리앙스 하이드라 펠시 크림(50ml 6만원) "하이dra펠시 크림은 웃음이 있는 화이트 세츠 같은 존재입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자, 피부 보습 유자의 핵심인 피부 표면부터 각질층, 표피, 그리고 피부 속 가장 깊은 진피까지 4개의 층에 최적의 수분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클리앙스만의 독특한 식물 성분이 피부 미세 순환을 도와 건조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클리앙스 공해 방지 복합체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보호하여 보습력을 지속시킵니다. 세 가지 피부 타입과 텍스처로 선보이는데, 끈적성 피부에는 리치한 크림 텍스처를 추천합니다." **▶이은아**클리앙스 교육부 부장 문의 080-542-9062

SK-II 스텝파워 크림(20g 12만원대) "수분 크림 이상의 보습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피부 밀도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피부를 선사해주는 크림입니다. 끈적임 없이 섹션하고 촉촉한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게 침투해 까칠한 피부결을 다듬어주고 넓은 모공, 과다 피지 등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케어해줍니다. '4배 농축 피타라', '액티-스텝 아키네스', '나인 아이아이드'로 구성된 SK-II만의 핵심인 스텝파워 콤플렉스가 뛰어난 탄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박정연**(SK-II 브랜드 매-자 문의 080-023-3333

시세이도 바이오 퍼포먼스 슈퍼 코렉티브 아이크림(15ml 9만2천원) "히알루론산 푼판 아이크림이라는 애칭답게 눈가의 건조함에 시세이도는 분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물방 주사라고 일컫는 히알루론산 주입법 시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이크림답게 3단계로 작용하는 히알루론산 시스템으로 수분을 꼭 붙들어 건조함을 없애고, 피부 가장 아래층인 진피층에서 섬유아세포의 생성을 늘려 히알루론산을 채운 후 바이오 디미아닝 콤플렉스가 표피층에서 히알루론산을 촉진하면 각질층에서 이를 최적인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손혜미**(시세이도 교육팀 과정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이예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세안 후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며 안 보이던 뽀루지도 서서히 올라온다면? 피부에 충분한 수분이 돌게 해 들쭉날쭉한 피부 건디션을 회복해야 한다. 수분 크림부터 마스크, 오일 세럼, 아이크림에 이르기까지, 코즈메틱 담당자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보습 제품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Forever youth

어려운 성분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좋은 화장품은 아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화장품 기업에서 오랜 연구와 엄청난 투자 끝에 독점적으로 선보이는 안티에이징 라인이라면 믿을 수 있다. 로레알 기업의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오로지 입생로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세대 안티에이징 라인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라인의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완전히 새로운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

이러한 글리코바이올로지에서 영감을 받은 입생로랑의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라인의 핵심 제품은 세럼이다. 글리칸이라는 과학적 요소와 코즈메틱을 결합해 세 가지 글리칸 복합체로 이루어진 활성 성분인 글리칸액티브™를 개발했다. 이 유니크한 활성 성분은 외부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열쇠로 문을 열 듯 잠금 상태를 '해지시켜' 단절되어 있던 피부 활동에 필수적인 메시지를 원활하게 전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되는 글리칸을 재충전하게 한다. 또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합성을 촉진해 피부 조직을 보다 단단하고 건강하게 한다. 글리칸액티브™를 고농축 함유한 입생로랑의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은 주름 개선, 리프팅, 플럼핑, 윤기 등 수많은 여성들이 고민하는 네 가지 요소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쫀득한 여린 핑크 컬러의 젤 타입인 텍스처로 바르자마자 얼굴 전체를 가볍게 당기듯 탄력을 주고, 상쾌하고 촉촉하게 스며든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 파운데이션은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드물게 자외선 차단과 주름 개선 이중 이중 기능성 제품으로, 기능성 스킨케어와 컬러외의 이상적인 만남을 완성했다. 마치 얼굴을 코르셋으로 조인 듯, 텍스처부터 볼까지 당겨 올리는 듯한 리프팅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워낙 텍스처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입생로랑이기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대가 클데, 파운데이션으로도 충분히 자연스럽고 촉촉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는 평. 스킨케어 기능을 갖춘 세럼 파운데이션인 만큼 손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드럽게 발리고 빠르게 스며들어 내추얼한 피부 표현에 어울리는 제품이다. 단순한 유수분 공급만으로 피부 젊음을 관리하기 에 역부족이므로 느린 여성이라면 입생로랑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라인이 좋은 해답이 되 어줄 것이다.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 30ml 14만원대,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 파운데이션 30ml 8만4천원대, 문의 080-347-0089 에디터 **배미진**

<스타일 조선일보>와 입생로랑이 함께하는, 젊은 피부를 위한 체험 키트 증정 프로모션

본 쿠폰을 지참하고 입생로랑 매장을 방문하시는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분들께 입생로랑이 선사하는 젊은 피부를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체험 키트(3종, 5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 기간 2013년 9월 16일(월)~30일(월) ◆ 해당 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2층, 갤러리백화점 WEST 1층,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층 ◆ 문의 080-347-0089

※ 1일 1백 개 한정 수량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 제품 조기 품절시,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SPECIAL EVENT COUPON

두피와 모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두피 관리를 꾸준히 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두피 컨디션에 따라 헤어 제품을 달리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비옥한 땅에서 작물이 잘 자라듯 두피를 잘 관리해야 모발이 굵아져서 않고 건강한 발단체 말이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발과 두피는 각종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디터도 마찬가지. 출근 시간에 쫓겨 아침에 머리를 제대로 밀리지 않는가 하면, 빗질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어 모근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또 피부에는 그로록 정성스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만 두피와 모발은 자외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니 모발이 변색되고 두피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뽀루지가 자주 출몰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헤어 관리 습관을 점검해보자.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두피 역시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다. 한 가지라도 균형이 깨지면 두피염이 올라오거나 탈모가 생기는 등 각종 두피 트러블로 이어지는 것. 그날그날의 두피 컨디션에 따라 다른 샴푸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두피가 건조해 각질이 생겼다면 수분력이 강한 하이드레이팅 샴푸를, 지루성 두피에는 두피의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두피 전용 샴푸로 클렌징하기를 추천한다. 두피가 쉽게 뜨거워지고 손으로 누르면 아픈 뽀루지가 생겼다면 민트나 티트리 성분이 콜링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두피의 열을 잠재울 것. 부스스하고 푸석한 모발에는 영양 성분을 듬뿍 함유한 헤어 팩이 제격이다. 모발 끝이 심하게 갈라지면 부사끈다면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에 달걀노른자와 꿀을 섞어 팩을 해주도록. 1~2회 사용만으로도 부드러운 두피를 느낄 수 있다.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르네 휘테르 리세아 스테이티브 스무드 컨디셔너** 정전기과 모발의 엉킴을 방지하는 헤어 마스크, 양모는 복합체가 장기간을 방지하고, 천연 파피 추출물이 모발의 부스스한 불균형을 컨트롤하고 굵술거림을 완화한다. 150ml 3만9천원, 문의 080-548-6002 **리쉬 루츠 헤어 트리트먼트**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고체형 헤어 트리트먼트. 멘솔, 올리브 오일, 꿀 등의 자연 성분이 모발과 두피의 밸런스를 건강하게 맞춰준다. 250g 3만1천원, 문의 1644-2357 **존 마스터스 오가닉 트리아헤어 네리시먼트 & 디프리카**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천연 허브 추출물과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트리트먼트 세럼. 두피염 치료에 탁월한 리벤더, 비둘 치료에 뛰어난 시더우드 등을 함유해 문제성 두피와 모발을 케어한다. 15ml 6만원, 문의 070-4353-6666 **시세이도 초파키 워터 부스스하고 건조한 모발에 즉각적인 촉촉함과 윤기를 부여하는 헤어 미스트** 고순도의 초파키 오일 EX를 배합해 모발에 윤기를 더하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모발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채워 촉촉하고 탄력 있는 모발을 가꿔준다. 250ml 1만4천원, 문의 080-564-7700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퓨어 리스스**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두피의 과잉 피부를 컨트롤하는 데일리 퓨리피잉 샴푸. 강한 세정력은 물론 풍부한 비타민 E 성분을 함유해 두피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 500ml 3만원대, 문의 080-089-5000 **드 이희 콜링 두피 세럼** 비르는 순간 시원한 콜링 효과를 주는 두피 전용 세럼. 하루오전씩 성분이 두피 세포에 활력을, 지오진 액 성분이 탈모를 방지한다. 80ml 3만8천원, 문의 02-3443-7738 **모로칸오일 웨이티브리스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헤어 도용 없이 바로고 팩을 하는 것만으로도 모발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는 헤어 마스크. 아르간 오일 성분이 높아지고 함유는 모발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고 단백질 보충에 윤기 있고 부드러운 모발을 선사한다. 250ml 4만원대, 문의 1666-5125



Repair hair

두피가 뜨거워지는가 하면 곳곳에 올라온 트러블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다면, 또는 어깨 위에 눈이 내린 듯 하얀 비듬이 떨어진다면 두피와 모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건강한 두피와 부드럽고 탄력 있는 모발을 위한 헤어 솔루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firming Perfection

손으로 피부를 당겨올린다 해도 늘어진 피부가 되살아나진 않는다. 모든 여자의 로망이자 목표인 피부 속부터 탄력 있게 차오르는 피부를 가꾸려면 꾸준한 탄력 케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No.1 안티에이징 크림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클라란스 엑스트라-피밍 크림을 <스타일 조션일보> 뷰티 에디터와 뷰티 전문가가 직접 사용해보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 탄력, 연결 고리가 해답이다

30대에 접어들면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피부 고민을 토로한다. '얼굴 살이 빠지는 것 같다', '피부가 늘어져 인상이 우울해 보인다'라고. 에디터 역시 요즘 들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피부 탄력 저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질게 드러온 팔자 주름과 볼품없이 빠진 얼굴 살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민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내려진 진단은 피부 탄력 케어가 시급하다는 것. 얼굴 살이 빠져보이는 건 피부 탄력 저하로 얼굴선이 흐트러지면서 생기는 피부 노화 현상으로, 피부 속 탄력을 담당해 세포 접착제라고도 불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연결 고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느슨해져 피부가 아래로 처진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엔 깊은 주름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가장 꾸준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탄력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삿바늘 공포증이 있으니 시술은 패스. 피밍, 리프팅, 재생 등을 복합적으로 케어하는 탄력 크림을 아침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해보기로 했다.

것을 막는 오가닉 그린 바나나와 오가닉 레몬 타임 추출물을,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해지는 저녁을 위한 나이트 크림엔 밤 사이 피부 자가 재생능력을 최적으로 끌어올리는 리스 펜타이드를 핵심 성분으로 담았다. 그 결과, 노화로 인해 피부가 늘어지는 것을 밤낮으로 차단해 탱탱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생크림같이 차지고 수분감이 느껴지는 텍스처는 바르는 순간, 탱탱하고 촉촉하게 흡수되는 것이 인상적이다. 특히 데이 크림은 피부를 유연하고 쫄쫄하게 해 마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듯 파운데이션이 고르고 매끄럽게 발리는 것이 장점. 자기 전 나이트 크림을 수면 팩 하듯 도톰하게 발라 흡수시키면 다음 날 피부가 눈에 띄게 매끄럽고 촉촉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엑스트라-피밍 크림을 쓰면서부터 예민해서 쉽게 붉어지는 피부가 안정되고 물리보게 부드러워진 것이 제일 큰 변화였으며, 눈가의 잔 주름이 눈에 덜 띄고 피부에 탱탱하게 탄력이 생긴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모든 피부용과 함께 수분력을 강화한 건성용 타입도 선보이니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도록. 엑스트라-피밍 데이 크림 & 나이트 크림 각 50ml 11만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권유진

직접 사용해보니 더 좋은 엑스트라-피밍 크림

탄력 케어에 앞서 가장 먼저 떠오른 브랜드는 클라란스다. 이는 탄력 케어의 선두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35년간의 긴 역사와 제품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프랑스 No.1 스킨케어 브랜드. 특히 '엑스트라-피밍 크림'은 1978년 처음 선보인 이래로 4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재 전 세계에서 7초에 1개씩 팔리며 15년간 프랑스 안티에이징 크림 판매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이다. 올해 새롭게 출시한 '엑스트라-피밍 데이 크림 & 나이트 크림'은 탄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 되는 피부 속 세포 연결 고리를 마치 고무줄 같듯 단단하게 잡아 탄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 아침에 바르는 데이 크림엔 피부가 느슨해지는

눈가와 입가에 느껴지는 탄력

'평장히 건조한 피부라 잔주름과 탄력 저하에 취약한 편인데 엑스트라-피밍 데이 크림과 나이트 크림을 사용한 후 눈가와 입가, 그리고 턱선이 한결 탱탱해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뽀뽀처럼 매끄럽게 발리면서 피부의 수분감을 잘 가꿔주는 가벼운 크림 텍스처로 건조한 피부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클라란스 특유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성세한 향은 바로는 즉시 말락스되게 하는 매력이 있어 더욱 가까이하게 돼요. 제품의 기능이나 질감, 향 등 모든 면에서 누구에게나 큰 효용을 얻을 만한 제품이에요.' **김세현**(인사출판사 편집장)

신뢰가 가는 탄력 케어 브랜드

'프레시한 향기와 부드러운 텍스처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보통 안티에이징 제품은 유분이 많는데,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림 없이 선뜻해요. 그렇다고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보습력이 오래 지속되는 데다 거친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개선하죠. 다른 피부에 비해 피부 재생이 매우 중요한 간성 피부에 맞는 타입이 따로 있다는 것도 장점이예요. 워너 V 에센스 등의 페이스 제품도 물론 보드 제품까지, 탄력에 관련된 제품으로 신뢰가 깊은 브랜드가기에 피밍 제품에도 믿음이 가요.' **배미진**(스타일 조션일보) 뷰티 에디터

black tea Magic

최상급의 어린 찻잎만 모아 발효 공정을 거쳐 탄생한 최고급 블랙 티를 주원료로 한 프레쉬의 블랙 티 컬렉션. 젊음을 부르는, 어린 피부를 위한 블랙 티 타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천연 원료를 세련되게 해석하는 뉴욕 브랜드, 프레쉬

국내에 브라운 슈거 스크럽 열풍을 몰고 온 브랜드를 알고 있는지. 바로 뉴욕에서 시작된 '세련된 이미지'의 스킨케어 브랜드 프레쉬다. 2002년 국내에 공식 수입되기 전부터 유명 뉴욕 화장품, 교포 화장품으로 명성을 높인 브랜드다. 1990년대 압구정동 문화가 주류를 이뤘을 때 프레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에티켓으로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였고, 프레쉬 향수와 프레쉬 사계 베스 용품은 유학생들의 필수품으로 거론되었을 정도로 명성이 대단했다. 확실함을 원료로 한 프레쉬의 슈가 페이스 플리쉬 제품은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것은 물론, 국내에서 수많은 미투(me too) 제품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스크럽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다. 프레쉬는 제품의 원료를 설명할 때 '연금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연 원료에 프레쉬의 감성을 불어넣어 오감 만족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제품으로 재창조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연금술을 완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원료다. 사계, 슈거 등 다양한 천연 원료를 소재로 오리엔탈리즘에 많은 영감을 받은 프레쉬의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라인인 블랙 티 컬렉션. 프레쉬의 창업자는 평소 홍차를 우려내 단맛이 나게끔 만든 콤부차(kombucha)에서 영감을 받아 블랙 티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불로장생의 모약으로 불리는 콤부차의 역사는 기원전 2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블랙 티의 발효 추출물인 폴리페놀 성분은 피부 깊숙이 지지 구조를 강화해 탄력 있고 주름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완성하는 데 착안해 블랙 티 컬렉션을 선보인 것. 프레쉬에서 주목한 블랙 티는 말 그대로 향산화의 아이콘이다. 발효한 블랙 티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과일과 채소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하고 있고, 생체의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은 물론 발효 과정 중 화학반응을 통해 복합적으로 생성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지니고 있다. 카페인, 불소, 칼륨, 사포닌, 감마아미노산 등 약효 성분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효과까지 있다.

확실한 항산화 안티에이징, 블랙 티 컬렉션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블랙 티에 그치지 않고 천연 원료 추출물을 더해 보다 뛰어난 프레쉬만의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 리페어&리스토어 콤플렉스를 완성했는데, 양귀비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즐겨 먹던 과일인 리치의 씨앗 추출물 역시 핵심 원료다. 리치 씨앗은 피부 탄력에 꼭 필요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생성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블랙 티 컬렉션 중 가장 먼저 사용해보아야 할 것은 슈가 페이스 플리쉬와 로즈 페이스 마스크의 명성을 잇는 프레쉬의 베스트 마스크인 블랙 티 인스턴트 퍼팩팅 마스크. 워시 오프 타입의 안티에이징 영양 마스크인데, 8분 정도만 사용해도 정말 촉촉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슈크림처럼 부드럽고 폭신한 텍스처가 인상적인 제품. 사용해보면 여타 어떤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희소성 있는 텍스처로, 6시간 이상이나 촉촉함이 지속된다.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콜링 기능도 뛰어나며 전혀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을 가득 담은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세럼은 여타 세럼과 달리 크림처럼 끈적한 질감이 특징. 소량으로도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고, 블랙 티 추출물이 피부 세포막을 보호해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며 피부 톤 개선 효과까지 있다.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은 프레쉬의 천연 성분 대안 노히유와 LVMH 연구소의 과학적 생체가 다해진 제품으로, 주름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카테킨의 보고인 블랙 티 성분과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는 리치를 주성분으로 해 주름과 탄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강력한 항노화 기능성 크림인 것. 이 크림을 바른 후 24시간 후에도 피부 수분율이 47% 상승한 것으로 측정되었을 정도로 수분 보유력이 뛰어나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안티에이징 제품과 전혀 다른, 편안하면서도 뛰어난 텍스처와 효과의 제품을 찾던 여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80-822-9500 에디터 배미진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 30ml 15만5천원,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세럼 30ml 13만5천원,
블랙 티 인스턴트 퍼팩팅 마스크 50ml 8만 2천원, 100ml 13만8천원.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프레쉬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프레쉬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는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분들께 블랙 티 라인인 베스트셀러이자 안티에이징을 위한 데일리 크림인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 5ml'를 증정합니다.

◆ 기간 2013년 9월 16일(월)~30일(월) ◆ 해당 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02-3479-6202), 현대백화점 압구정점(02-3438-6026),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02-3467-8414), 갤러리아백화점 WEST(02-547-4115), 롯데백화점 잠실점(02-2143-1930)

※ 1일 1백 개 한정 수량 ※ 증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한정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inpres X C's

핀을 향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아름다운 샷!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느껴집니다.

야마하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세계 항상 놀라움의 대상입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잇 카(it car)'를 겨냥한 가을대전

Ever Evolving

〈디자인의 쫓이〉라는 책에서 저자 사카이 나오키는 대중화의 물꼬를 튼 T형 포드만으로는 '보다 빠르고, 보다 멋진 스타일의 자동차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카 디자인이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언젠가부터 '스피드와 함께 '스페이스가 주요 요소로 떠오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렇듯 공기저항을 의식한 차체 디자인뿐 아니라 '이동 정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날렵하면서도 승차감은 보다 안락한 프리미엄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울가울을 화려하게 수놓을 명품 가들의 한층 더 진화한 위용을 살펴본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 헨리 포드가 현대적인 생산 라인을 통해 '모델 T'를 내놓은 이래 자동차는 대중의 품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포드즘'으로 알려진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14시간이 소요되던 조립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니, 그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불붙은 인류의 지극한 자동차 사랑 덕분에 점차 대중화가 전개된 것은 물론, 명품 반열에 오르게 된 브랜드들까지 대거 쏟아져 나왔다. 지칠 법도 한데, 멈출 줄 모르고 진화의 노선을 달리고 있는 명품 차들은 매 시즌 어떤 뎀시와 내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에게 은근한 설렘과 기대를 품게 한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입 차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을 겨냥한 명품 차들의 공략도 한층 더 거세다. 올 하반기에도 중대형 세단, 스포츠카, 프리미엄 소형차 등 각 부문에서 영예로운 '잇 카'의 타이틀을 놓고 더 좋아진 성능, 디자인, 가격, 연비 등을 내세운 경쟁전이 치열해질 듯하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는 세단 시장

우선 세단 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중형 세단 시장에서 각각 신형 5 시리즈와 E-클래스로 격돌하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경쟁이 일단 주목을 끈다. 중형 세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용호상박'의 대결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나온 신형 E-클래스는 이미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BMW 신형 5 시리즈가 9월 말 모습을 본격 드러낸다. 먼저 선보인 E-클래스는 젊은 감각을 지향하는 만큼 훨씬 더 '스포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E-클래스의 전형적인 디자인 요소였던 트윈 헤드램프 대신 '싱글'을 활용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헤드램프 내부의 작은 라이트를 통해 E-클래스를 상징해온 '4개의 눈'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또 E-클래스 최초로 아방가르드(avantgarde)와 엘레강스(elegance)로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의 전면부 디자인이 제공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인 'The New E 300 BlueTEC 하이브리드 아방가르드'를 선보이는 점을 주목해달라"며 첨단 디젤 하이브리드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8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6천만원대인 The New E 200 Elegance부터 1억3천8백50만원대 모델인 The New E 63 AMG 4MATIC 모델까지 다양하다.

BMW 뉴 5 시리즈도 섬세하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인 면모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예를 들어 뉴 5 시리즈 중 세단과 투어링 모델의 키드니 그릴 윤곽에는 새롭게 추가된 라인과 하단 공기 흡입구가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또 후미등은 더욱 날렵하고 예리한 곡선으로 마무리해 후면부의 너비를 더욱 강조한 듯한 느낌이다. 기능적인 면모에서도 빠질 수 없다. 세단과 투어링의 컨트롤 디스플레이는 크롬 트림으로 마감했고, 센터 콘솔 수납함과 컵 홀더의 크기는 더욱 커졌다. 그런 투리스모는 후미부 디자인을 새롭게 바꿈에 따라 트렁크 용량이 60L 늘어난 500L로 커졌다. 또 뉴 5 시리즈의 모든 엔진은 2014년 9월부터 발효될 EU6 배기기준을 이미 충족한다고 BMW 관계자는 설명했다. BMW는 오는 10월에는 중형 세단의 디자인 미학과 주행의 역동성을 겸비한 뉴 4 시리즈 쿠페도 내놓을 예정이다. 가격은 미정.

더 길고 넓고 힘차며, 우아해진 프리미엄 세단의 매력

'격이 다른'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브랜드 벤틀리(Bentley)의 신형 플라잉 스파(Flying Spur)는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단 4.6초 만에 도달하는 등 벤틀리의 4도어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하다는 신형 플라잉 스파는 '성능'에 걸맞게 보다 역동적인 뎀시를 뽐낸다. 전체적으로 좀 더 낮고,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했고, 차체 표면의 조형감을 부각했다. 승차감은 더 안락해졌다는데도 벤틀리가 자랑하는 6L 트윈 터보 W12 엔진과 ZF 8단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출력 6백25마력(625PS), 최대 토크는 81.6kg·m에 이르며, 최고 322km의 속도를 낸다. 가격은 2억8천만원대부터 시작된다. 한편 세단 시장의 강력한 북풍으로 토요타가 꼽히고 있다. 올 상반기 미국의 대형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토요타 4세대 아발론(Avalon)도 곧 정식으로 입성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3 서 울모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던 아발론은 북미 시장 주력 모델로, 토요타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케 한다는 야심작이다. 전반적으로 힘찬 디자인에 몰 흐르는 듯한 루프 라인과 낮은 벨트 라인이 자아내는 측면 실루엣이 매



력적이다. 가격은 미정.

9월 말에는 포르쉐(Porsche)의 인기 스포츠 세단인 뉴 파나메라(메이스리프 트 버전) 시리즈가 무려 9종이나 줄줄이 나온다. 지난 4월 열린 상하이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돼 화려한 조명을 받은 뉴 파나메라 시리즈는 기존 모델보다 휠베이스를 연장한 이그제큐티브 3종, 4백16마력의 파나메라 S E-하이브리드, 새로운 3L급 V6 바이터보 엔진을 탑재한 파나메라 S와 파나메라 4S 등 총 12대의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최신 기술을 적용해 연료 소비를 56%나 줄이면서 주행의 안락함을 향상시켰다는 뉴 파나메라 시리즈 중 파나메라 터보 S, 파나메라 터보 S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S E-하이브리드를 제외한 9종이 국내에 소개된다. 가격은 미정.

지속적인 상승세가 무서운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도 흥미롭다. BMW가 지난해 뉴 1 시리즈를 내놓은 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가 울가울을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3천만~4천만원대 A-클래스를 들여왔다. '젊은 메르세데스'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닌 만큼, A-클래스는 활기차며 진보적인 외관 디자인, 항공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인테리어 등 감성을 살린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 날렵한 전면부, 조각과 같은 또렷한 캐릭터 라인으로 자신감 넘치는 측면부, 검은색 마감재를 사용한 범퍼 하단과 테일 램프로 차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는 후면부 등이 눈길을 끈다. 사카이 나오키가 일찌감치 콤팩트 카도 차내의 '공간 활용'에 신경 쓴다고 설명하며 예로 들었던 바로 그 A-클래스이다. 이번 에 세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The New A 200 CDI는 3천4백90만원, The New A 200 CDI Style는 3천8백60만원(부가세 포함), The New A 200 CDI Night는 4천3백5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이다. 내년 초에는 아우디의 뉴 A3까지 가세한다. 기존 A3 모델들이 해치백(햇썬루프)과 트렁크가 합쳐진 형

태)이었던 것과 달리 이 모델은 절제된 내부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을 주는 '세단형'으로 알려졌다. 소형차 시장을 둘러싼 열전이 이렇듯 뜨겁게 펼쳐지는 건 물론 '숫자의 논리'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가운데 소형차(2000CC 미만)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성공 사례인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 6월 디자인과 품질을 앞세우며 내놓은 골프 7세대 등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등 독특한 재미를 보고 있다.

진정한 카마니어를 위한 스포츠카도 속속 상륙

열혈 스포츠카 팬들도 심심치는 않을 것 같다. '디자인의 끝판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재규어의 컨버터블 스포츠카 F타입(F-type)이 눈길을 확연히 끌고 있는 가운데, 눈을 자극하는 람보르기니의 슈퍼 카 2종까지 뛰어 들었다. 재규어 F타입은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이언 칼럼의 뛰어난 감성이 제대로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스포츠카 'D타입'의 혈통을 이어 무려 40년 만에 부활한 역작이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초경량 알루미늄 모노코크 보디를 채택하고 주요 부품의 경량화를 모색해 한층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도 강성은 더욱 높였다고 한다. 도어 핸들은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다가도 터치 패널을 건드리면 마치 악수를 하듯 돌출되며, 50km/h 이하 주행 중에도 12초 만에 차체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소프트 톱이 탑재된 이 모델은 많은 이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격은 1억4백만~1억6천만원대. 슈퍼 카라고 하면 '최강'을 자부하는 리서리 카 브랜드 람보르기니(Lamborghini)는 지난 8월 가이아르도 라인업의 최고급, 초경량 모델인 3억원대 가이아르도 LP570-4 슈퍼레제라 에디지오네 테크니카를 선보인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오픈-톱 슈퍼 카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 로드스터를 승부수로 띄운다. 이 모델은 2011년 여름에 나온 뒤 1천3백여 대의 판매고를 올린 플래그십 모델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의 컨버터블 버전이다. 탈착이 간편한 투피스 루프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탄소섬유로 제작해 무게가 6kg가 채 되지 않는다고.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엄청난 성능을 내세우는 이 리서리 카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이 3초에 불과해 2.9초인 쿠페 모델과 차이가 거의 없다. 최고 속도 역시 350km/h로 쿠페 모델과 동일하다고. '극강'의 면모를 자랑하는 슈퍼 카답게 가격은 5억원 후반대로 예상된다. 울가울에도 배후이 넘실대는 자동차 세상에 시선이 쏠리면 눈이 쉴 틈이 없을 듯하다. **SI** 에디트 고영연



Kansai Gourmet

<미술랭 가이드>도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일본. 그중에서도 맛있는 레스토랑은 간사이에 모여 있다. 간사이는 교토, 오사카, 나라, 와카야마 등이 있는 지방으로 일본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현지인들만 아는 특별한 곳에서 전통 요리와 현대 요리를 경험해보자.

간사이 구이다오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곳 중 하나가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이라는 것을 아는지? <일본 미술 랭 가이드 간사이 2013>에서 미술랭 3스타 12개, 2스타 52개, 1스타는 2백16개나 받은 것. 아시다시피 미술랭 3스타는 그 음식점이 가기 위해 여행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와카야마(和歌山)로 대표되는 간사이 지방은 간사이 구이다오레(關西 食文化)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간사이에서 먹다 망한 것이라는 뜻.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으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와카야마는 특히 맛있는 고장이다. 그중에서도 시라하마는 해안에 위치한 1천5백 년 역사의 온천 지역이라 온천과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히 매력적이다. 우선 전통 료칸 스타일의 무사시 호텔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본 요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가이세키 요리를 맛보는 것은 어떻게? 가이세키 요리는 우리나라의 한정식과 마찬가지로 일본 전통 요리인데,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차례대로 정성스럽게 서브된다. 간사이 요리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셈이다. 에도 시대부터 시작된 가이세키 요리는 지방별로 차이가 있는데, 시라하마의 가이세키 요리는 이곳 특산물인 매실로 만든 두부와 매실주, 보리 된장, 사시미로 포문을 연다. 세 종류의 사시미는 참치, 도미, 갈치로 시라하마의 지역 특산물 나가사(Nagisa) 맥주를 곁들이면 제격이다. 다음에는 작은 화로에 살아 있는 전복을 굽는다. 전복이 살짝 구워지면 버터를 올려서 녹여 먹는데, 탱탱한 전복과 부드러운 버터의 조화가기가 막하다. 메인 요리인 쇠고기 스키야키 요리가 나오면 이미 배는 불러온다. 이곳의 요리는 온천수로 만들어 부드럽고 감칠맛 난다는 평이다. 가이세키 요리의 마지막은 역시 밥이다. 도미 된장국에 가지와 오이 장아찌가 나온다. 디저트는 팔과 말차를 반씩 넣어 만든 케이크이다. 가이세키 요리는 가장 유서 깊은 전통 요리답게 기모노를 정갈하게 입은 웨이트리스가 서브하는데, 요리가 나올 때마다 어떤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해준다. (www.yado-musashi.co.jp)

매실과 간장의 도시, 와카야마

와카야마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빠른 2월이면 마나베 바이린에 매화꽃이 만개하는데, 그 열매를 소금에 절여 매실 장아찌인 우메보시를 만든다. 새콤달콤하게 소금에 절인 매실 요리 '우메보시'는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돕기에 우리나라에도 마니아들이 있는 인기 음식. 와카야마 현 우야시는 간장으로 유명한데, 이는 일본 간장의 시초이다. 1841년 문물 연간장 가게 '가도조가' 건재하며, 간장박물관에서는 1백 년 전의 간장을 시식해볼 수도 있다. 호텔 무

사시 바로 옆 아이스크림숍에서는 간장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으니 맛보시길! 간장을 주재료로 한 와카야마 라면도 인기 있다. 간사이의 셀러리맨들이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인 와카야마 라면은 돼지뼈 우린 국물에 간장을 넣어 만든 간장 라면. 향이 독특해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지만 곧 부슬부슬 비 오는 날 딱 어울리는 요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와카야마는 온천으로도 유명하다. 일본 3대 온천은 도고, 아리마, 그리고 와카야마의 시라하마 온천이 꼽힌다. 해수 온천이라 다소 짭짤한데, 류머티즘, 근골육, 피부 미용에 좋다. 호텔 무사시와 시키의 온천 등에서 노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와카야마의 명소인 시라하마 해변은 유럽 작은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하얗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곳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엔게쓰토 바위가 멀리 보인다. 엔게쓰토 바위의 구멍으로 노을 속의 해가 비추는 풍경이 장관이니 날씨 좋은 날 방문해보시라.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물 시장인 '도레도레' 이치마에도 둘러보자. 현대적 건물에 와카야마 전통 식재료가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다. 수산물 코너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참치 해체 작업은 매일 볼 수 있는가 하면, 고래 고기도 있다. (www.toretore.com)

간사이 말차의 예의

녹차로 유명한 간사이를 여행하면서 말차를 맛보지 않을 수 없다. 말차는 짙은 찻잎을 그늘에서 말린 후 잎맥을 제외한 나머지를 곱게 갈아서 마시는 음료를 뜻한다. 찻잎을 우려 마시는 일차로는 섭취할 수 없는 차의 모든 영양소를 마실 수 있다. 우리나라 다도 문화를 꽃피우게 한 초의스님은 다선일미(茶禪一味)라고 찬미했다. 다선일미는 차 안에 삶의 진리와 명상의 즐거움이 녹아 있다는 뜻. 그만큼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음미하는 시간만큼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말차를 평범한 찻집이 아니라 간사이의 특별한 공간에서 마실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말차를 운치 있게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몇 곳 중 먼저 와카야마 성의 말차를 소개한다. 와카야마 성은 16세기에 건축되었다가 몇 번의 재건 과정을 거친 이곳의 랜드마크이다. 도라후스야마 산에 자리 잡은 와카야마 성은 비가 자주 오고 햇빛도 강렬한 간사이 기후의 특성상 이끼와 수목으로 뒤덮인 울창한 정원을 한참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다. 와카야마 성의 정원은 태평양의 기운을 듬뿍 받아 봄에는 벚꽃과 작약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정원을 감상하며 성곽을 따라 올라가면 와카야마 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내부는 마자로 연결되어 있으며 꼭대기에서 와카야마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니시노마루 정원의 다실에서 말차를 주문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와카야마 성의 정원을 바라보며 다다미방에서 말차를 음미하는 기분이 낭만적이다. 참



1 배우 장쁘이 주연의 영화 <가이사의 추억>이 촬영된 절경으로도 유명한 교토의 사찰, 후시미야, 만티야사. 2 교토의 고다이시템플은 봄, 가을에는 아간 개장도 하기에 초자에게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해가 지는 것을 감상하며 정원에서 밀치 한잔을 마시노라면, 고다이시템플은 어느새 환상적인 정원으로 변신해 있을 것이다. 3.8 예술적 요리의 도시 교토는 스키야키 레스토랑에서도 이렇듯 아름다운 디저트를 제공한다. 4 간장을 주재료로 만든 와카야마 라면은 간사이의 셀러리맨들이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 돼지뼈 우린 국물에 간장을 넣어 만든 라면인데 초밥과 곁들여 먹기도 한다.

간사이의 전설적 우지차

교토는 우지차의 원산지이자 다도의 중심지이다. 교토 우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우지차(宇治茶)는 고급 녹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만큼 맛과 향기가 일본 최고다. 교토의 녹차 명소 두 곳을 소개한다. '고다이시(高台寺) 템플과 녹차 전문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교토 후쿠주엔(Kyoto Fukujuen)'이 바로 그것. 17세기 초에 건립된 고다이시는 봄과 여름에는 아간 개장을 한다. 히가시야마리우 산 기슭에 위치하며 전통 정원과 현대 정원이 고루 구비되어 있다. 일본 현대미술을 연상시키는 현대 정원은 정기적으로 콘셉트가 바뀌며, 전통 정원은 간사이 스타일의 엄격함을 구비하고 있다. 아간 개장을 하는 계절에 방문한다면 어스름한 저녁에 가서 밝을 때의 정원 풍경을 살펴보고, 말차 한 잔을 마시며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화려한 대나무 숲의 라이트 업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www.kodaiji.com) 교토 시내에 자리 잡은 '교토 후쿠주엔'은 녹차 브랜드 교토 후쿠주엔의 본점이다. 지상 9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10개 층에서 각기 다른 콘셉트로 우지차를 즐길 수 있다. 모든 층에 작은 현대식 정원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 1층은 우지차 워크숍 공간으로 우지차를 블렌딩하거나 셀렉션해 자신만의 입맛에 맞는 차를 찾을 수 있는 곳. 1층은 선물용 우지차를 디스플레이해놓아 쇼핑 욕구를 자극한다. 2층에서는 우지차를 주원료로 한 디저트와 음료를 맛볼 수 있고, 3층은 우지차를 함께 곁들이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우지차의 그린 컬러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디저트를 맛보는 재미가 황홀하다. 3층의 프렌치 레스토랑은 플레이트와 인테리어가 대단히 화려해서 비즈니스 다이닝이나 연인과의 데이트에 어울릴 듯하다. 4층은 일본 전통 다도 공간처럼 꾸며져 말차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과연 교토를 대표하는 녹차 브랜드다운 근사한 공간이다. (www.fukujuen-kyotohonten.com)

교토 가이세키와 천황의 사케

1천1백 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의 요리는 예로부터 예술 작품으로 불렸다. 재료 부연

의 맛을 살리면서 간사이 특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사이 특산물은 송이버섯, 밤, 가지, 은어, 방어, 죽순, 해산물 등이다. 교토 스타일의 음식을 맛보러 가이세키 요리집 '우사부로를 예약했다. 이 요리집은 일본 전통 정원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개의 다다미방으로 나누어져 있어 오붓하게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일본 전통 미타이문도 두 겹짜리 소음 없이 고요하다. 먼저 매실과 다시마를 우려낸 차가 서브된다. 바다 위의 매실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 요리는 일본식 벤토 스타일로 나온다. 뚜껑을 열어 나란히 내려놓으면 두 가지 요리가 펼쳐지는 것이다. 오른쪽 요리는 죽순과 산초, 왼쪽은 연어, 새우, 계란, 물고기 알이 그림처럼 세팅되어 있다. 아욱과 도미, 참치회와 마가 곁들여 나온다. 생선 종류가 가이세키 요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떤 생선이 서브되는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속 글루텐을 넣은 광어 수프와 죽순, 토란을 올린 생선 요리가 나오면 이제 하이라이트는 모두 맛본 셈이다. 음식은 담백하고 독창적이다. 점심 코스 요리이며 해산물을 위주로 사용하는 요릿집이기 때문에 부대낌 없이 깔끔하다. 고추, 버섯, 새우에 쌀가루를 입혀서 튀긴 덴푸라, 그리고 죽순밥이 나오면 식사는 마무리된다. 모든 요리가 근사했지만 모두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디저트였다. 검은 꿀 푸딩에 키위와 딸기를 올린 디저트는 전통과 현대의 장점을 극대화한 교토 가이세키 요리의 상징으로 보였다. (www.uosaburo.com) 바로 인근에는 천황에게 납품하는 사케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게크케이칸 주조장이 있다. 17세기에 세운 이 주조장은 여천히 가족 경영을 하며 전통 사케를 만들고 있다. 에도 시대의 기념품과 박물관, 판매장, 주조장, 시음장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교토의 1백 가지 명소에 포함'되어 있다. 아황산염을 첨가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사케 생산을 추구하며, 쌀로 만들었지만 포도도 만든 와인과 마찬가지로 과일이나 꽃 향이 솔솔 풍긴다. 특히 인기 있는 사케는 뚜껑에 작은 잔이 달린 병에 담아 면세점에서도 판매한다. (www.gekkeikan.co.jp) 간사이에서 꼭 먹어봐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오사카의 오키노미야기, 고베의 하이라이스와 스테이크, 교토의 스키야키와 사부사부, 와카야마의 간장 파스타 등 간사이에서 먹다 망한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된다. 고풍어 초밥 역시 꼭 맛봐야 한다. 미술랭 3스타에 빛나는 기쿠노이 본점(菊乃井 本舗)에서 두툼한 고풍어 초밥을 맛본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http://kikunoi.jp) 여행은 고행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맛있는 전통 요리와 함께한다면 고행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일 단 행복한 식사를 마친 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자. 초의스님의 말처럼 한잔의 차 안에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다. **ST 글 이소영** (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사케, 그니까 홀더란)의 취재, 취재 조카 **Kansai the Foundation**(www.kansai.gr.jp/kr)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행형색의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장식해 구슬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오픈 토 슈즈, 발끝에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8백5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은은한 브라운 컬러의 T 스트랩 슈즈, 92만5천원 **말포 로렌 컬렉션**,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의 핑크색 펠프는 단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1백73만원 **마블로 블라니**, 과감한 카탈이 멋스러운 스와로브스키 스톤 샌들, 발목 스트랩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패턴을 장식해 고급스럽다. 3백38만원 **파치오티**, 발등을 아름답게 감싸는 스트랩과 힐을 화려하게 장식한 주얼 장식이 포인트인 화이트 슈즈, 1백59만원 **지미 추**, 반짝이는 실버 스트로로 화려함을 극대화한 오픈 토 슈즈, 조영에 반사된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산한다. 2백48만원 **주세페 자노티**, 볼드한 주얼 장식과 골드, 블랙의 컬러 매칭이 세련된 느낌을 주는 샌들, 1백97만원 **크네 카오빌라 by 라골렉시오** 에디션 **이예진**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라골렉시오 02-6905-3775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지미 추 02-3443-9469 파치오티 02-545-8757 마블로 블라니 02-3443-2113 말포 로렌 컬렉션 02-545-8200



긴 드레스 자락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은근히 드러나는 웨딩 슈즈는 신부의 발걸음을 따라 눈부신 오라를 발산한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물론 이브닝드레스와 디너파티 룩에 밌감을 짝어줄 드레스한 슈즈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rilliant Steps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BEAUTY

비오렘 올모 아쿠아파워 XL 사이즈 리미티드 에디션 비오렘 올모에서 아쿠아파워 XL 사이즈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10초에 1개씩 팔리는 비오렘 올모의 베스트셀러 모이스처라이저인 아쿠아파워를 기존 사이즈보다 25ml 커진 100ml 용량의 XL 사이즈로 한정 수량 선보인다. 산뜻한 워터-젤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생기와 싱쾌함을 불어넣고, 건조함을 막아 촉촉하게 유지시킨다. 문의 080-022-3332

인생로랑 포에버 유스 리베레이터 프레젠테이션 인생로랑이 스카제어의 첫 공식 행사 포에버 유스 리베레이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스 리베레이터의 근간이 된 클리닉 체험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클리닉-사이언스 전문가인 피터 H. 사버가 교수가 클리닉이 울로자와 클리닉의 우수성, 미래 과학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클리닉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혁신적인 복합 활성 성분 클리닉아쿠아™와 인생로랑 포에버 유스 리베레이터의 2가지 신제품도 공개했다. 문의 080-347-0089

메르세데스-벤츠 퍼fum 포 우먼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여성 향수를 국내 처음 출시한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향과 모던한 보틀 디자인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베르가모트와 피치의 경쾌한 톤 노트와 미모사화 로즈, 바이올렛, 은방울꽃이 어우러진 피치 노트, 달콤한 바닐라와 파우더리한 화이트 머스크의 베이 스톤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플로럴 향수다. 문의 02-3443-5050

파코라반 인빅티스 파코라반에서 강인한 남성성을 위한 섹슈얼 프러시 계열의 향수, 인빅티스를 출시한다. 상

큼한 지용 향의 톤 노트로 사뭇 월계수 잎과 재스민의 신선한 미들 노트로 이어지다가 우드와 파슬리, 양버 등이 어우러진 베이스 노트로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챔피언을 상징하는 트로피를 모티브로 한 보틀도 특별하다. 문의 02-3443-5050

유니레버 트레세미 유니레버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트레세미(TRESEMMÉ)'를 선보인다. 1947년 미국에서 탄생한 트레세미는 미국, 영국 등 20여 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고품격 헤어 샴푸 케어 브랜드다. 비타민 E와 내추럴 오렌지 감질 추출물, 왕굴 추출물, 아몬드 오일 등 천연 성분이 들어 있어 건강하고 윤기 있는 모발로 가꿔준다. 문의 080-041-7100

티파니 웨딩 밴드 티파니가 다이아몬드 웨딩 반지와 멋지게 연출할 수 있는 웨딩 밴드를 제안한다. 18K 옐로·로즈·화이트 골드와 플래티넘 등으로 선보이는 밴드 링은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했다. 심플한 디자인의 말그레인, 브랜드 특징을 살린 TCO, 볼드한 아틀라스 링 등 감각적인 디자인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7-9488



SHOWROOM

셀린노 하트 카바 백 셀린노가 2013 F/W 시즌을 맞아 최상급 양가죽으로 제작한 '하트 카바 백'을 제안한다. 다른 장식 없이 형태만으로 모던한 아름다움을 강조한 카바 백은 하트 모양을 연상케 하는 블랙 & 화이트 투톤 컬러로 선보이며, 안감 없이 심플하게 완성했다. 문의 02-3440-1547

구찌 레이디 락 구찌에서 2013 F/W 시즌 레이디 락 핸드백을 선보인다. 구찌의 아카이브 라지 락과 동일한 스타일의 메탈 클로저가 특징으로, 기존의 뱀무늬 패턴들 모양에 블랙 컬러의 광택을 입히는 변화를 주었다. 악어, 파인톤, 오스트리치, 새틴 등 고급스러운 소재와 퍼플 와인, 그린, 블랙 등 깊고 풍부한 컬러, 27가지 사이즈로 선보인다. 문의 02-3438-7213

말포 로렌 파인 모델 카 컬렉션 말포 로렌의 파인 모델 카 컬렉션은 자동차를 디자인 스킨한 다음 각 부품의 형태와 디테일을 정교하게 전체에 오리지널 자동차를 1/10mm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모형이다. 총 97가지로 선보이는 한정판 미니어치는 홍콩 프린스 빌딩 플라자 스토어에 전시되어 있다. 문의 02-6004-0136

테드 베이커 2013 F/W 컬렉션 테드 베이커 2013 F/W 컬렉션은 반드지한 그라운드 영감을 얻은 플라이 프린트와 페인팅, 보석 장식을 주요 프린트로 사용했다. 레드, 그린, 블루 등 선명한 원색을 바탕으로 보다 밝고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드레스를 비롯해 브랜드 로고인 'T'를 메탈로 장식한 클라치백과 슈즈도 주목할 만하다. 문의 02-310-5112

토즈 데이비드 리사펠 팜 터치 토즈가 사촌친구 데이비드 리사펠이 합작해 팜 터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말안장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셀라 백은 밝은 컬러와 초현실적인 동화적인 배경에서 열망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문의 02-3448-8105

롬 브라운 갤러리아 이스트 신규 오픈 롬 브라운의 신규 매장이 갤러리아 이스트 4층에 오픈한다. 현대화점 본점과 무역센터점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매장으로 최근 도교에 오픈한 아오야마 플라자 스토어와 같이 뉴욕 롬 브라운 매장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다. 블라인드로 가린 외관은 프라이빗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의 070-7130-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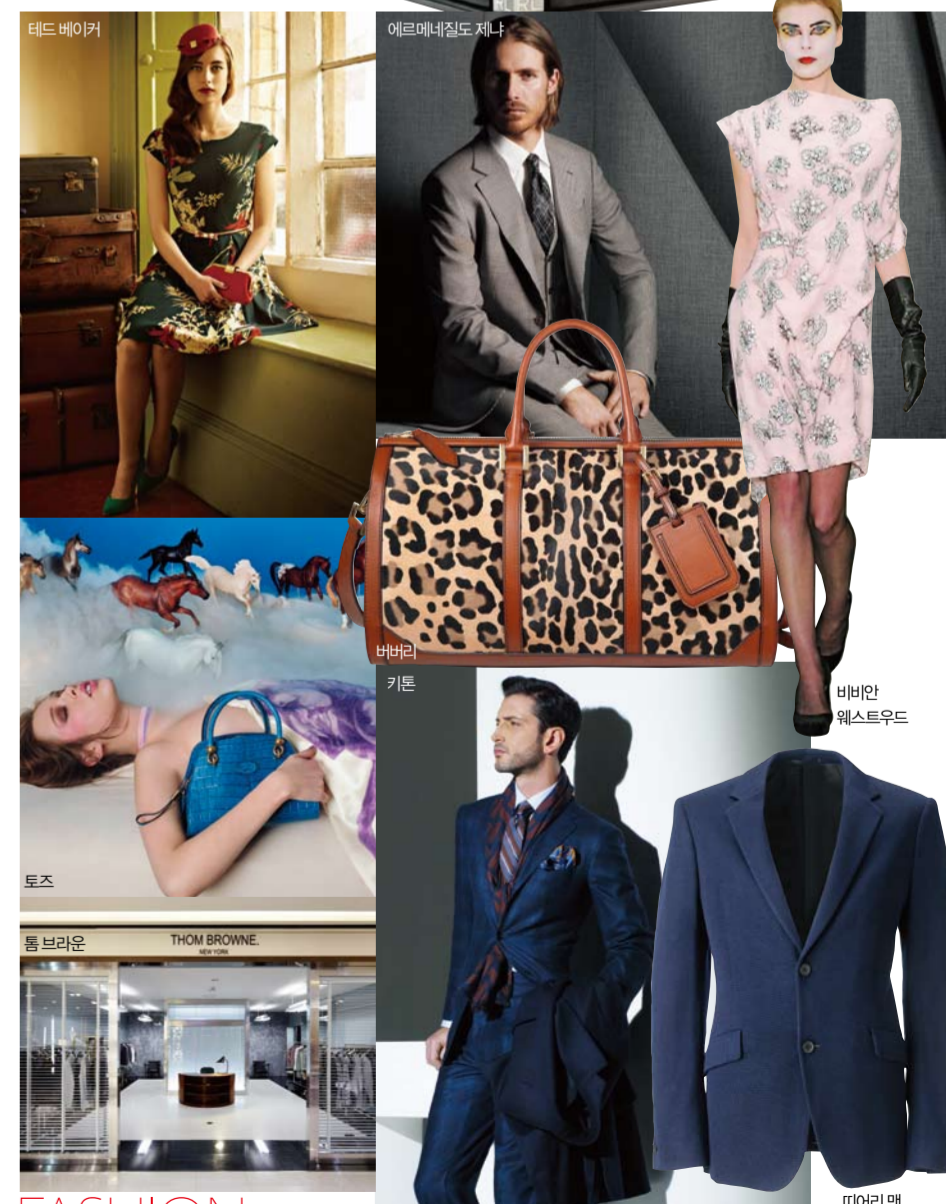
에르메네집도 제나 울 트로피 50주년 기념 캡슐 컬렉션 에르메네집도 제나는 올해 50주년을 맞은 울 트로피 시상식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캡슐 컬렉션을 한정 판매한다. 첫 번째 울 트로피를 수상한 농장의 울로 제작한 1960년대의 울 수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캡슐 컬렉션의 모든 제품에는 특별한 로고와 셀바지가 새겨져 있다. 문의 02-2240-6521

비버리 웨스트우드 플라이 프린트 드레스 비버리 웨스트우드는 2013 F/W 레드 라벨 컬렉션에서 플라이 프린트 드레스를 선보였다. 화려한 꽃무늬와 핑크 컬러의 매치가 특징이며, 흐르는 듯한 실루엣과 네크라인이 멋스럽다. 문의 02-543-1713

비버리 스포티드 애니멀 프린트 보스틴 백 2013 F/W 비버리 프로성 컬렉션에서 선보인 보스틴 백은 비버리의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 중 하나다. 애니멀 프린트와 가죽 채운 송차와 하우스 체크 먼 트릴 27치 소재로 선보이며, 반드지한 여행 가방을 연상시키는 형태가 특징이다. 문의 02-3485-6583

키튼 갤러리아 리뉴얼 오픈 키튼의 갤러리아 명품관 매장이 리뉴얼 오픈했다. 이번 리뉴얼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의 인터리어를 하나의 콘셉트로 통일하기 위함이다. 대리석 바닥 장식, 고급스러운 메탈 큐브 오브제와 집기류 등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변신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2-542-9953

타이리 맨 웨이트 타이리 맨에서 환할기 재킷, 웨이트를 선보인다. 매 시즌 선보이는 스테디셀러인 웨이트 재킷은 모 혼방 소재로 이루어졌으며, 세련된 컬러감과 몸을 감싸고 흐르는 슬림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가볍고 편해 실용적이며, 군더차지 않는 매끈한 디자인이라 쉽게 잡지 않는다. 문의 02-544-0065



JEWEL

FASHION

PHOTO

R A L P H

L A U R E N



2013 가을시즌부터 온라인에서도 랄프 로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ALPHLAUREN.CO.KR